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호 【루계 제25512호】 주체106(2017)년 1월 3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고전적로작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5돐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돐에 즈음하여 지난해 12월 23일 로씨야 나호드까 포르마트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5돐,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9돐에 즈음하여 스웨리예 스톡홀름 랠링비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발행식이 지난해 12월 22일 스톡홀름에서 진행되였다.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테르 본드그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99돐에 즈음하여 스웨리예 스톡홀름 랠링비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김정은각하의 로작을 출판하는것은 스웨리예에 있는 조선의 벗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영광이며 응당한 본분이다.

우리는 김정은각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고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조선인민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기네국내방송은 김정은각하께서 원산군민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원산군민발전소가 완공됨으로써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전력과 주민생활용수, 공업 및 관개용수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을뿐아니라 이 지역의 자연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변모시킴으로써 강원도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시던 김정일령도자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강원도인민들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더욱 커졌다고 하시면서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창조와 건설의 동음소리를 더 높이 울리며 모든 면에서 전국의 앞장에서 달려나가라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 중국의 환구망, 기네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콩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우루과이신문 《라 후벤투드》,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원산구두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신문, 인터네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김정은령도자 조선은 그 어떤 강적도 건드릴수 없는 동방의 군사강국이라고 강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여러 나라에서 일제히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체106(2017)년 새해를 맞으며 하신 신년사를 1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신년사에서 제도전복과 《변화》에 기대를 걸고 감행되는 불순한 반공화국모략소동과 적대행위들은 지체없이 중지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남조선당국은 북남간의 군사적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체 조선민족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활발히 접촉하고 래왕하여야 한다고 밝히시였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대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침략과 간섭책동을 분쇄내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프랑스의 AFP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언급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이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동방의 군사강국으로 솟구쳐올랐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민족의 근본리익을 중시하고 북남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기꺼이 손잡고 나아갈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년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증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갈것이라고 천명하시였다.

미국의 AP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신년사에서 사회주의정치군사진지를 불패의 보루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일편단심 당을 따르는 조선인민의 순결하고 뜨거운 마음과 지향을 가로막고 당과 인민대중을 갈라놓으려는 적들의 비렬하고 악랄한 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고 전하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텔레웨TV방송, 에호 모스크비방송, 신문들인 《이즈베스찌야》, 《모스꼽스끼 콤쏘몰레츠》, 중국의 신화통신, 환구망, 해외망, 홍콩봉황망, 홍콩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싱가포르 TV《아시아소식통로》, 이란의 프레스TV방송, 까타르의 알 자제라 위성TV방송, 영국의 로이터통신, BBC방송, 미국의 UPI통신, ABC방송, NBC방송, 신문들인 《워싱톤 포스트》, 《뉴욕 타임스》, 《워싱톤 타임스》,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니홍케이자이신붕》, 《도꾜신붕》, 《마이니찌신붕》, 《아사히신붕》도 《김정은령도자 조선은 그 어떤 강적도 건드릴수 없는 동방의 군사강국이라고 강조》 등의 제목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전문 또는 요지로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민의 리상과 꿈을 이 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갈 드높은 열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 접한 각계의 반향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투쟁기풍입니다.》

뜻깊은 올해에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인민의 리상과 꿈을 이 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줄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온 나라를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백배해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은 지금 새해의 진군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당정책관철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함경북도당위원회 위원장 전승훈**은 이렇게 말하였다.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우리 인민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자자구구 새길수록 올해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자부심이 가슴가득 차오른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 혁명적당풍이라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려명거리건설까지 중시하고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 기술적자원을 피해복구전투에 총집중하도록 해주시였기에 북부피해지역에서 전화위복의 새 력사가 창조되고 북변땅 인민들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을 누릴수 있게 되였다.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올해전투의 승패는 당조직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 기본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당에서 중시하는 문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는데서 중심고리로 되는 문제를 정확히 포착하고 력량을 총동원하여 풀어나가겠다. 그리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키상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마다에 세차게 나래치게 하겠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쳐나갈데 대한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도안의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여나감으로써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의 앞장에서 함북도가 질풍같이 달려나가게 하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는 우리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고 하면서 **창성식료공장 초급당위원장 여인남**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모든 당원들과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 더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공세를 드세차게 벌려나가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다고 하시였다.

우리 초급당조직에서는 과학기술인재들의 역할을 생산장성의 중요한 고리로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그들의 창의창발성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겠다.

이와 함께 명상품, 명제품개발이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종업원들이 새 제품개발에 너도나도 뛰여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황금산》상표를 단 우리 공장의 산과일가공품들을 누구나가 즐겨찾는 인기상품으로 만들도록 하겠다.

청단군 양화리당위원장 송순근은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리얼이 맑고 째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군이 되기 위해 이 아침에 엄숙히 명약한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격정의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쳤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보니 지난 1년간 인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하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은 나로 하여금 인민중시의 뜻을 받들어 뜻깊은 올해에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한길에 한몸을 초불처럼 장그리 불태울 결심이 백배해진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 가르쳐주신대로 인민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당정책을 관철해나가겠다.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사람들의 가슴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진심을 바쳐 풀어주고 인민들의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립장에 서서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며 늘 일감을 찾아쥐고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해나가겠다.

인민들로부터 우리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는 참된 인민의 충복, 충실한 심부름군이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우리가 갈 길은 오직 자력자강의 길

내각부총리 겸 화학공업상 리무영은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 금속, 화학공업부문이 기치를 들고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당과 조국, 시대앞에 지닌 본분을 더욱 깊이 새기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5개년전략수행의 첫해의 투쟁과정에서 찾은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중요화학공장들의 능력을 확장하고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겠다.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우리 일군들에게 모든것이 달려있다. 우리 경제지도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사업을 통이 크게 설계하고 완강하게 내밀어 단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비롯한 나라의 화학공업발전을 힘있게 떠밀고나가겠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위원장 김창길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무한한 격정속에 받아안은 련합기업소일군들과 탄부들이 발전소와 금속, 화학공장들의 석탄수요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총공격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섰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정치사업무대를 증산투쟁으로 끓어번지는 지하막장으로 옮기고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들이대여 탄부대중을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총공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겠다.

지난해에는 100hp권양기, 통풍기, 버력적재기, 벨트콘베아수송선부분품들과 같은 중요설비와 부분품들을 제작하는데 머물렀다면 올해에는 그 성과를 계렬생산단계에로 확대하여 막장작업의 기계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석탄증산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나가겠다.

새해의 첫아침, 리얼이 맑고 째끗한 마음으로 우리 인민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군이 될것을 명약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탄부들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여 탄부들의 증산열의를 최대한으로 높임으로써 뜻깊은 올해전투에서 있게 떠밀고나가겠다.

철도성 부상 안재철은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기 위한 새해의 진군길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가슴가슴은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휩싸여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지난해에 이룩한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우리 철도운수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할 올해에 발전소와 금속, 화학공장들의 수송수요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겠다.

일군들부터가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패배주의와 보신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와 단호히 결별하며 수송조직과 지휘를 더욱 혁명적으로 짜고들고 철도운수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계속 강화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한몸을 초불처럼 장그리 불태우겠다.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안명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크나큰 격정속에 가슴설레이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신년사를 자자구구 새겨볼수록 힘이 솟고 올해 조국통일운동의 앞길이 눈앞에 환히 안겨와 신심과 용기가 백배해진다.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은 갈수록 악랄해지고있다. 하지만 위대한 태양의 빛발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북남사이의 첨예한 군사적충돌과 전쟁위험을 해소하며 온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문제 등 현시기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절세위인의 고귀한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조국통일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다면 자주통일위업의 실현은 문제없다.

우리는 절세위인의 애국애족의 호소에 무한히 고무된 해내외의 온 겨레와 힘을 합쳐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다그쳐나감으로써 력사적인 7.4공동성명발표 마흔다섯돐과 10.4선언발표 열돐이 되는 올해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는 매우 의의깊은 해로 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본사기자

애국충정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보니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게 된다고 하면서 **국토환경보호상 김경준**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성일군들의 가슴마다에는 당의 결심대로 10년안에 기어이 조국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설레이는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고야말 불타는 맹세와 열의가 부글부글 끓어넘치고있다.

우리는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당의 뜻대로 도들에 현대적인 양묘장들을 튼튼히 꾸리고 산림복구전투를 근기있게 밀고나가겠다. 뿐만아니라 강하천관리와 도로보수, 환경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국토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켜나가겠다.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자면 우리 일군들이 당의 국토관리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애국충정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칠 결사의 각오로 떨쳐나서야 한다.

우리는 국토관리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관점을 가지고 조직과 지휘를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화선식으로 관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진행해나가겠다. 그리하여 내 조국의 산천을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체모에 맞게 아름답고 훌륭히 꾸려 조선은 결심하면 반드시 한다는것을 세계앞에 현실로 보여주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무한한 격동속에 받아안은 **황해남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김진국**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새겨볼수록 가책되는바가 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키고 다수확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우리 도의 일군들은 다수확운동은 곧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떨쳐나 총결사전을 벌려나가겠다. 모든 농촌일군들이 자기 시, 군, 협동농장의 현실을 손금보듯이 알고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해당 지역에 맞는 우량종자와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온 도에 청단군 심정농장, 안악군 덕성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들에서 확증된 알선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과학농사열풍이 세차게 타오르도록 하겠다. 뜻깊은 올해에 과학농사에서 기수가 될 결사의 각오로 다수확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룡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리명철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새겨볼수록 승리의 신념은 더욱 굳세여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곧 과학이고 승리이다.

우리 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이 신념을 뼈에 새기고 애국충정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 올해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력자강의 위력을 더욱 높이 발휘하겠다.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농업근로자들을 지식형근로자로 준비시키기 위해 농업과학기술보급실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실속있게 운영하며 현실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우량종자와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는 사업을 강하게 내밀겠다.

두벌농사면적을 늘이고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적극 창안도입하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애국충정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 모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고 당앞에 다진 맹세를 기어이 실천하겠다.

당중앙을 과학기술로 결사옹위하리

국가과학원 원장 장철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인 올해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킴으로써 우리의 자강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가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과학기술부문앞에 나서는 과업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나가겠다.

과학기술로 경제발전의 길을 열고 과학기술로 경제를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에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가겠다.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첨단돌파전의 불길을 더 세차게 일으켜 과학기술강국, 지식경제강국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겠다. 그리하여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주체과학기술의 위력을 또다시 힘있게 과시하겠다.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당의 전략적구상실현을 위한 과학탐구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뜻깊은 올해에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고 당중앙을 과학기술로 결사옹위해나가는 조선지식인의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기개를 세계앞에 다시한번 힘있게 보여주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체신성 정보통신연구소 소장 민정기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고 북받쳐오르는 자기의 격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기 위한 새해의 총진군에서 나라의 신경이며 혈맥인 체신부문을 지켜선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임무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들은 첨단돌파전을 더욱 과감하게 전개하여 체신설비의 수입의존성에 종지부를 찍고 체신의 현대화를 우리 식으로 실현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당과 국가의 지휘통신을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설비로 믿음직하게 보장해나가겠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당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명실공히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사회주의체신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지혜와 재능과 열정을 다 바쳐나가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혁명적경사의 해,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나는 2016년

대비약으로 약동하는 주체조선에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 접한 우리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가슴마다에는 만리마의 기상으로 폭풍쳐 내달리고 있는 우리 조국의 필승불패성과 휘황찬란한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이 충만되어있다. 새해 진군길에 나선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위대한 승리는 앞날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주며 미래에 대한 락관은 억만금보다 더 귀중하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신념과 락관은 주체혁명사에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번영의 새 력사를 창조하며 하루하루를 민족사적인 승리와 획대사변들로 빛내인 지난해의 성과로 하여 백배해지고있다. 주체105(2016)년은 우리가 최후승리를 앞당길수 있는 지름길을 밝혀주고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2016년은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혁명적경사의 해, 위대한 전환의 해였습니다.》

지난해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특기할 해이며 전체 인민이 당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투쟁강령을 높이 받들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한 장엄한 총진군을 개시한 력사적출발의 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첫아침 전당, 전군, 전민이 뜻깊은 2016년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데 대하여 호소하시였다.

지난해의 정세는 극도로 첨예하였고 력사에 류례없는 시련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나섰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온 한해동안 위험천만한 핵전쟁도발과 초강도제재책동에 미쳐날뛰였다. 여기에 갑자기 들이닥친 자연의 대재앙은 엄중한 난국을 조성하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겹쌓이는 난관을 파감히 뚫고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으로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등 모든 전선에서 다발적이며 련발적인 대비약적혁신을 이룩하였다. 주체혁명을 가일층 발전시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킨 거대한 승리와 성과로 하여 2016년은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새로운 분수령으로 빛나고있다.

지난해에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리정표가 세워졌다.

혁명의 기관차이며 사회의 심장인 당의 전투력과 령도력을 높이며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는 옳바른 투쟁강령을 마련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백두의 대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지난해 5월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세계의 커다란 관심속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뜻깊고 성대하게 진행되였다. 당 제7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혁명을 백승의 한길로 전진시켜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투쟁사를 긍지높이 총화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따라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놓은 력사적인 대회이다. 대회를 계기로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갈 혁명적의지가 뚜렷이 천명되고 전당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굳게 결속되였다. 특히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수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조국과 혁명의 앞길에는 휘황한 전망이 열려지게 되였다.

지난해에 우리 당력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는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지름길을 열어놓은 뜻깊은 대회, 영광의 대회였다. 대회를 통하여 당의 기층조직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집행해나가는 기본전투단위인 초급당조직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과 전투력을 백배로 다지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앞당겨나갈 질서의 신념과 의지가 힘있게 과시되였다.

근로단체조직들은 당과 인민대중과의 유기적련계를 보장하며 광범한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당 제7차대회이후 련이어 소집된 청년동맹, 직맹, 녀맹, 농근맹대회들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전면적으로 추진되고있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인전대인 근로단체조직들을 더욱 강화하고 그 전투적역할을 높이는데서 획기적리정표로 되였다.

우리 혁명의 정치적력량을 철통같이 다지고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진로가 뚜렷이 제시된 2016년의 력사적의의는 주체혁명위업의 승승장구와 더불어 더욱더 무각될것이다.

지난해에 주체조선의 국방력강화에서 획기적전환이 이룩되였다.

그 어떤 침략자들도 일격에 짓뭉개버릴수 있는 무진막강한 군력은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생존권을 굳건히 지키고 공고한 평화적환경속에서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을 마음먹은대로 내밀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이다.

지난해에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것을 비롯하여 핵무기의 고도화와 우리 식 최첨단전략무기개발에서 련이은 승전포성이 울려퍼졌다.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은 정치사상강군화, 도덕강군화를 힘있게 다그치고 백두산혼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유사시 하늘과 땅, 해상과 수중을 비롯한 모든 작전공간에서 침략자들과 그 본거지들을 피멸시킬수 있는 싸움준비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었다.

국방분야에서의 빛나는 성과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고무적힘을 안겨주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세력들을 수치스러운 과멸의 길에 몰아넣었으며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비상히 높이였다. 수소탄까지 보유한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위력떨치는 우리 공화국과의 평화적공존은 오늘 적대세력들에게 있어서 피할수 없는 숙명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전환적국면이 열려진것은 지난해에 이룩된 특기할 성과의 하나이다.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는 적들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여지없이 짓부시고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한 전민결사전, 만리마의 새시대를 탄생시킨 거창한 창조대전이였다.

우리의 슬기롭고 재능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은 지구관측위성《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에 이어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케트용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에서 성공함으로써 우주정복에로 가는 넓은 길을 닦아놓았다. 지난해에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절실히 필요한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되였다. 국산화, 현대화의 열풍속에 우리 식의 무인화된 본보기생산체계들을 확립하고 우리의 원료, 자재, 설비들을 수많이 개발생산하였으며 농업생산에서 풍작혼을 부를수 있는 다수확품종들을 육종해낸것이 그 뚜렷한 실례이다. 전력과 석탄, 금속, 화학, 건재공업과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부문들에서 생산과 수송전투목표를 수행하여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과시하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고 인민군대가 앞장에 서서 황금해의 력사를 더욱 빛내였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 신화적인 건설속도가 창조되고 교육과 보건, 체육부문에서도 우리의 녀자축구선수들이 2개의 월드컵을 련이어 들어올리는것과 같은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에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이 총동원, 총집중되여 전대미문의 복구전쟁을 치르면서도 당이 내세운 200일전투목표를 빛나게 수행하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어제낀것은 주체조선의 무한대한 국력과 대비약의 기상을 만방에 과시한 일대 사변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의 큼직큼직한 대성공, 대전과들로 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의지대로, 우리 당이 내세운 기준점을 중심으로 세계가 변하는 위대한 변혁의 시대, 세기를 주름잡으며 휘황한 미래의 모든것을 우리 인민의것으로 만들어나가는 눈부신 만리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며 우리가 긍지높이 여기는것은 전체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에서 커다란 전변이 일어난것이다. 력사적인 70일전투와 200일전투는 단순한 증산돌격전이 아니라 거창한 사상전이였으며 새로운 시대정신의 창조투쟁이였다.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횡포한 제재봉쇄를 짓부시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지난해의 련속적인 철야전군에서 패배주의, 요행주의, 보신주의, 보수주의를 비롯한 온갖 잡사상을 불사르고 전진하는 신념의 강자들, 공격형투사들의 대군이 자라났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군인들과 청년들은 고난과 시련을 용감하게 맞받아나가는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의 부름에 오직 헌신과 실천으로 대답하는 결사관철의 기상, 서로 돕고 이끌면서 비약을 이룩해나가는 집단주의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쳤다.

최후승리의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며 더욱 철저히 준비된 전결한 혁명가들을 요구한다. 백두산영웅청년정신과 같은 오늘의 우리 시대를 상징하는 공격적인 혁명정신이 탄생하고 전체 인민이 시대정신의 체현자, 창조의 거인들로 튼튼히 준비된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성과로 된다.

지난해에 우리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결코 기회나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며 하늘이 준 우연도 아니다.

뜻깊은 2016년에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에서 일대 전환의 해로 아로새겨지게 된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지난해는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특출한 령도력이 비상히 높은 경지에서 과시된 력사적인 해였다.

사나운 역풍을 백두의 칼바람으로 쳐갈기고 련속공격전으로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오려는 우리 당의 의지는 확고부동하였다. 위대한 당중앙의 불굴의 공격정신과 현명한 령도는 자강력제일주의기치밑에 세차게 타오른 70일전투와 200일전투의 불길에도 어려있고 만난시련을 강행돌파하여 세계적인 핵강국, 강대국으로 솟구쳐오른 우리 조국의 기상에도 빛발치고있다. 사상론을 만능의 보검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우리 당의 혁명방식은 지난해의 전인민적인 총돌격전에서 빛나게 구현되였다. 혁명적학습열풍을 일으켜 천만군민을 먼저 사상정신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철임식정치사상사업으로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며 각 부문들에서 전형단위들을 창조하고 집단적경쟁열풍이 온 나라에 휩쓸도록 이끈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훌륭한 결실을 안아왔다.

우리 당의 백승의 령도의 근본비결은 바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데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치는 우리 인민의 힘과 지혜, 기질이 세상에서 제일이며 인민대중을 불러일으키면 천사만사가 다 풀려나간다는 확고한 믿음의 정치이며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자신의 한몸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시는 멸사복무의 정치이다. 오로지 인민을 믿고 인민을 위해 새해 정초부터 온 한해 나라의 방방곡곡의 궂은 길, 험한 령, 위험천만한 최전선길을 걷고 또 걸으신분이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끊임없는 현지지도강행군길에서 떠어나고 날이 새도록 꺼질줄 모르는 당중앙의 불빛이 전하여주는 전설같은 인민사랑의 일화들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그것은 그대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활화산처럼 폭발시키고 기적과 대변혁을 일으켜나갈수 있게 하는 원천으로 되고있다.

전설에도 없는 만리마를 불러오시고 천만군민을 만리마시대의 억센 주인공으로 키우시여 주체조선의 대번영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최악의 역경속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승리를 안아온 신비스러운 힘은 천만군민의 일심단결, 위대한 자강력이다.

우리 인민은 수령만을 따르고 받들며 받아안은 은덕에 보답할줄 아는 훌륭한 인민이다. 우리 조국과 인민을 하루빨리 천하제일강국으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려 불철주야로 헌신하시는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어버이께 심장으로 매혹되여 그이와 함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갈것을 맹약한 투사들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이 세상에 불가항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지난해의 투쟁목표는 참으로 방대하였고 전진로정은 형언할수 없이 간고하였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혹심한 대재앙을 겪은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을 짧은 기간에 이전보다 더 훌륭한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거창한 복구전투도 어느 외국인이 말했듯이 《불가능과의 대전쟁》이였다.

그 무슨 초강도제재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비렬하고 필사적인 방해책동속에서 당의 권위를 결사옹위하고 당의 부름이라면 불붙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결의 정신, 민족적자존심은 천백배로 폭발되였다. 령도자와 팔을 끼고 어깨를 걸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영웅적희생성을 발휘하여 온 한해를 세계를 경탄시키는 기적적승리들로 수놓아왔다.

일심단결이야말로 주체조선의 생명이고 비약의 원동력이며 우리가 갈길은 오직 자력자강의 한길이라는 바로 이것이 2016년의 장엄한 투쟁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실천으로 확증한 주체혁명의 고귀한 진리이다.

세계가 공인하는 불세출의 위인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탁중앙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절사옹위하는 무적의 군대와 위대한 인민이 있기에 우리는 그 어떤 제앙이 닥쳐오고 천만시련이 겹쌓이어도 두렵지 않으며 그 어떤 대업도 반드시 이룩할수 있다.

새해 2017년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해이다.

지난해에 우리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전진의 보폭을 크게 내짚었으며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첫시작을 잘 떼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하는것은 더욱 중요하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투쟁기풍이다. 기적의 2016년에 발휘한 애국충정의 전투적기백과 창조적열정을 뜻깊은 올해에 더욱 높이 발휘하여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드팀없는 실천이다.

위대한 당,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빛내이려는 천만군민의 불타는 열망에 의해 2017년은 우리 조국청사에 대번영의 해로 찬연히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채 철 룡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언해설

《조선의 결심은 곧 실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이 명언에는 우리 당의 결심은 당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하는 천만군민의 불굴의 정신력에 의하여 반드시 거창한 현실로 펼쳐지게 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조선의 결심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결심이다. 력사의 생눈길을 파감히 헤치며 주체조선이 억세게 나아가는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굳건히 이어나가시는 백승의 길이며 세상에 둘도 없는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불패의 군사강국, 백두산청년강국으로 위용떨치는 우리 조국의 장엄한 현실도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사상과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가장 걸출한 령도자의 구상과 결심이라는데 조선의 결심의 근본특징이 있다.

조선의 결심은 언제나 과학이고 진리인것으로 하여 반드시 실현된다.

오늘 우리 당의 모든 구상과 결심에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합법칙적요구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략전술,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며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속도로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지름길 등 최후승리를 위한 방향과 방도들이 집대성되여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로선은 우리 당의 결심의 과학성과 진리성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로선이며 우리 인민이 핵강국의 덕을 입으며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하고 과학적인 로선이다.

뜻깊은 지난해에 우리 조국이 동방의 핵강국으로 솟구쳐오른것은 주체조선의 결심은 반드시 실천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조선의 결심은 우리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을 안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의하여 언제나 빛나는 승리로 이어지고있다.

당의 구상과 결심은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실천해나가는 주체적혁명력량이 튼튼히 준비되여있을 때 현실로 구현될수 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이 번개를 치면 우뢰로 화답하고 벽을 울리면 강산을 울리는 혁명적인 군대와 인민이다. 사회주의대건설시기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과 결심을 빛나게 실현하여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만리마진군의 시대에 더욱 꽃피여지고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당, 전군, 전민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두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조국의 북변땅에 억년 드놀지 않을 인민의 보금자리, 사회주의성새를 일떠세운 전화위복의 기적적승리는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아가는 우리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기상을 만천하에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사상도 하나, 숨결도 하나, 보폭도 하나이다. 천만군민이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절대적인 지지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고있기에 조선의 결심은 언제나 실현되는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언에 담겨진 뜻을 심장깊이 새기고 우리 조국땅우에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퍼지게 될 천하제일강국의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할것이다.

유 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깊이 학습하고있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 본사기자 찍음

올해에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기 위한 과업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고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더 큰 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새해 행군길에 또다시 떨쳐나서야 합니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특질이며 투쟁기풍이다. 지난해 당 제7차대회를 빛내이기 위한 70일전투와 200일전투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올해에도 비상히 앙양된 혁명적기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릴 결의에 넘쳐있다. 천만군민의 불타는 혁명적열정과 투쟁본때가 기적적승리로 이어지자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자기의 뼈와 살로 새기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올해의 투쟁과업은 무엇인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 총력을 집중하는것이다.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사이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것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목표이다. 당의 새로운 병진로선을 틀어쥐고 에네르기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우고 농업과 경공업생산을 늘여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키는데서 올해는 관건적인 해이다. 올해에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워야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릴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신년사에는 과학기술부문에서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에 중심을 두고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생산정상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주력할데 대한 문제,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이 기치를 들고나갈데 대한 문제, 석탄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 발전소와 금속, 화학공장들의 석탄과 수송수요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할데 대한 문제, 기계공업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올해에 경공업과 농업, 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인민생활향상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할데 대한 문제, 국토관리사업에 온 나라가 떨쳐나설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전환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투쟁과업들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인민의 리상과 꿈을 이 땅우에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거창하고 보람찬 사업이며 그 전망은 락관적이다.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과 튼튼한 배심을 가지고 대담한 공격전, 전인민적인 결사전을 벌려나갈 때 사회주의경제강국은 하루빨리 일떠서게 될것이다.

문화분야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켜 문명강국건설을 앞당겨나가는것이다.

우리가 건설하는 문명강국은 사회주의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이다. 문명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야 전체 인민을 풍부한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닌 사회주의건설의 힘있는 담당자로 키우고 인민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할수 있다.

지난해 우리 나라의 주요대학들을 세계적인 일류급대학들과 당당히 겨룰수 있는 교육과 과학연구의 중심기지, 국제학술교류의 거점들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류경안과종합병원과 보건산소공장이 새로 일떠서고 미대륙 녀자축구선수들을 비롯한 우리의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에서 승리하여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떨치였다.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올해에도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이룩하려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교육과 보건, 체육, 문학예술을 비롯한 문화분야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켜 문명강국건설을 앞당겨나갈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올해를 과학교육의 해로 정하고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과학교육시설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밝힌 신년사는 우리 나라를 가까운 앞날에 인재강국, 교육의 나라로 만들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 깃든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 신년사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할 때 지난해에 이룩된 성과가 더 큰 성과로 이어져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사회주의정치군사진지를 불패의 보루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것이다.

강력한 정치군사력은 나라의 존엄과 힘의 상징이며 만제대결전과 사회주의건설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정치군사적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국가의 전략적지위를 공고히 하고 경제문화건설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며 조국통일위업도 앞당겨 실현할수 있다.

일심단결은 주체조선의 생명이고 비약의 원동력이며 강력한 군사력은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굳게 뭉친 힘이 있고 그 어떤 천만대적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는 불패의 혁명무력이 있으면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두려울것이 없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보위하고 부강번영의 힘찬 진군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올해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유산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위력인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고 군력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이다. 신년사에는 천만군민이 당과 한피줄을 잇고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철통같이 뭉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데 대한 문제, 조선인민군창건 어든다섯돐이 되는 올해에 군력강화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한 과업들이 제시되여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있지만 천만군민이 당중앙의 두리에 억척의 성새를 이루고 막강한 군력을 가진 우리 식 사회주의는 자기가 정한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갈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들을 심장에 새기고 우리 당이 펼친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윤 철 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뛰르끼예공화국 대통령에게 위문전문을 보내였다

앙까라

뛰르끼예공화국 대통령

레쎄프 타이프 에르도간각하

나는 귀국에서 테로공격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소식에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피해자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합니다.

나는 온갖 형태의 테로를 반대하는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재확언하면서 테로방지를 위한 당신과 귀국정부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6(2017)년 1월 2일 평 양

박 봉 주 총 리

2.8직동청년탄광 현지료해

박봉주내각총리가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하여 석탄증산투쟁으로 들끓고있는 순천지구 청년탄광련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과업을 높이 받들고 직동의 탄부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투쟁에 총궐기하여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총리는 탄광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탄부들이 석탄증산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도록 고무해주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는데 력량을 집중하고 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대책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정신으로 수놓아진 당일군들의 새해 첫걸음

들끓는 전투장으로, 생산자대중속으로

성, 중앙기관의 당일군들

새해의 첫아침과 더불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각오는 더욱 새로와졌고 발걸음 또한 달라졌다. 그 누구보다 분발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자자구구 학습하고 출발진지에 나선 당일군들이다.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에서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분투해나아가자고 절절히 호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온 나라 인민앞에 하신 뜨거운 맹약은 전당의 당일군들에게 비상한 자각을 안겨주고있다.

우리 원수님처럼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며!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뜻 받들어 인민들속으로 더 깊이, 더 가까이!

이런 불타는 지향을 안고 들끓는 전투장으로, 생산자대중속으로 새해의 첫걸음을 의의깊게 내짚은 성, 중앙기관 당일군들의 모습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고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것이 우리 당의 활동원칙으로,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사업기풍으로 되고있다.》

1월 1일 아침에도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굴뚝에서는 약동하는 조국의 슴결인양 흰 연기가 거세차게 뿜어져나오고 있었다.

바로 그것을 지켜 헌신의 구슬땀을 묵묵히 바쳐가는 로동계급을 제일먼저 찾은 사람들은 전력공업성 일군들이였다.

열생산1직장의 평범한 로동자들과 새해인사를 나누며 올해에 전례없는 전력증산과를 이룩하기 위한 방도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하는 성당책임일군의 모습은 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을 새로운 혁신에로 고무추동하였다.

그 시각 금속공업성 당책임일군도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강철직장 용해공들속에 있었다.

쇠물이 이글거리는 전기로앞에서 쇠장대를 휘두르는 용해공들을 만난 그는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강철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서 강선로동계급의 본때를 보이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성일군들의 성의가 어린 갖가지 지원물자들을 받아안은 기업소로동계급은 기세충천하여 새해 첫날전투계획을 120%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새해 첫아침 석탄공업성 당책임일군도 수도의 불빛을 지켜 수천척지하막장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고있는 2.8직동청년탄광 탄부들을 찾아 떠났다.

석탄증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탄전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그는 온 탄광종업원들앞에서 격식없는 정치사업을 진행하였다.

신년사에서 자기 부문앞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다시금 깊이 인식시키고 령도업적단위답게 석탄전선의 선봉에서 계속 힘차게 내달리자며 많은 지원물자들을 안겨주었다.

철도성정치국 일군들도 들끓는 전투장으로 새해 첫걸음을 힘있게 내짚었다.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 나간 정치국책임일군은 로동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신년사에서 제시된 기업소현대화와 관련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방도를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평양철길대 청년철길기계화기동2중대에 나간 정치국일군은 양력설날에도 철길관리사업에 진심을 바쳐가는 철길원들을 고무해주면서 충정과 애국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두줄기 궤도를 굳건히 지켜가자고 절절히 이야기하였다. 순천철길대, 신성천철길대의 10여개 철길소대들에 달려나간 정치국일군들도 철길원들에게 성의껏 마련한 물자들을 안겨주면서 신년사과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인 농업전선을 담당한 농업성 당일군들도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을 비롯한 주요전투장들에 달려나갔다.

수십t의 비료를 싣고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 나간 성당책임일군은 비료하차작업에 동원된 제3작업반, 제5작업반 농장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지강협동농장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농업부문의 본보기단위로 선정하고 꼴을 들여키워주신 농장이라고 하시며 이 농장이 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받들고 일을 더 잘하고있다고 과분한 평가를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깊이 새기고 신년사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도 전국의 앞장에서 내달리자는 성당일군의 힘있는 호소는 농장원들로 하여금 올해가 알곡생산에서 분수령을 이루게 하는데서 자기의 몫을 다할 결심을 굳게 가다듬게 하였다.

화학공업성 당책임일군도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 석탄을 보장하는 고원탄광의 막장에 들어가 공기호스, 피대, 고무판을 비롯한 자재들과 지원물자들을 안겨주며 로동계급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진군해나아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새해 첫날부터 화선참호들을 찾아 생산자대중과 슴결을 같이하며 혁신적인 성과들을 이룩해나가는 성, 중앙기관 당일군들의 전위적인 사업기풍과 일본새는 뜻깊은 올해의 전투승리를 확신하게 한다.

본사기자 김순영

사리원시 미곡리당위원회에서

더 정답게, 더 뜨겁게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이 차넘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미곡리당위원회 일군들이 새해의 첫걸음을 힘있게 내짚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입니다.》

리당위원회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기면서 농장원들에 대한 자신들의 복무관점을 다시금 돌이켜보았다.

리당위원장 리일복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인민을 위해 그처럼 심신을 깡그리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따르자면 지난해보다 농장원들을 위해 백배, 천배로 헌신해야 하겠다고 자책하였다.

더 정답게, 더 뜨겁게!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사상과 정신을 심장에 새겨안고 새해의 출발진지에 선 이곳 리당위원회일군들의 불같은 지향이고 확고한 결심이였다.

일군들은 남들이 다 쉬는 양력설에 복무의 입감들을 스스로 찾았다.

리당위원장의 첫 발걸음은 리소재지에서 10리 떨어져있는 청년작업반합숙으로 이어졌다.

전날에 그곳 초급일군들에게 합숙생들을 위해 양력설준비를 잘해줄데 대하여 강조하였지만 그들에게로 쏠리는 마음을 걷잡을수가 없었던것이다.

청년작업반합숙을 찾은 그는 무모없는 10명의 합숙생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며 각별한 정을 기울이였다.

유충숙, 유록숙, 유란원동무를 비롯한 청년작업반원들과 허물없이 어울리며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의 나날에 발휘했던 그 정신, 그 본때로 올해 총진군에서 청년강국의 주인공의 역할을 다해나가자고 고무해주었다.

제1차 전당초급당위원장대회의 력사적인 결론에 지적된대로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분신이 될 일념속에 리당위원장은 그날 하루에도 사랑을 안고 정을 안고 많은 가정들을 찾았다.

부위원장 신광철동무는 특류영예군인 김철진동무의 가정을 찾아 혁명의 불을 계속 피우도록 고무해주었다.

관리위원장인 송윤희동무는 부모없는 아이들을 데려다 온갖정을 다해 키우고있는 김선숙동무의 가정을 찾아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의 웃음꽃을 활짝 피워주었다.

기사장 김성룡동무는 미곡땅에 수십년간 헌신의 구슬땀을 묵묵히 바쳐온 전 관리위원장 로력영웅 강명옥로인의 가정을 찾아 건강상태와 생활형편도 알아보면서 뜨거운 정을 기울이였다.

일군들이 쏟아붓는 진정은 누구에게나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우리 당, 어머니당의 참모습을 다시금 깊이 느끼게 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영광의 땅 미곡리를 더욱 풍요하게 가꾸어갈 각오를 가다듬게 하였다.

더 정답게, 더 뜨겁게!

바로 여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정초부터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자욱을 힘차게 찍어가는 미곡리당위원회 일군들의 벅찬 슴결이 그대로 비껴있다.

본사기자 리정수

친혈육의 정을 안고 찾는 가정과 일터

락랑구역당위원회 일군들

새해 첫아침부터 이 땅에는 인민사랑의 노래가 뜨겁게 울려퍼졌다.

락랑구역당위원회 일군들속에서 꽃펴난 미풍을 통해서도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무한히 격동된 전당의 당일군들의 새해 첫 발걸음이 어떻게 새겨지고있는가를 느끼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앞에 무한히 겸손하여야 하며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면서 인민이 바라는 일, 인민이 먹을 몫수 있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심장에 새겨안고 새해 첫 진군길에 나선 구역당일군들이 먼저 찾은 곳은 구역주민들의 가정이다.

구역당위원회 계획에 따라 해마다 진행해온 가정방문이였지만 올해의 그 열도는 퍽 다르다.

구역당일군들이 찾은 집들을 보면 그것을 알수 있다.

특류영예군인들의 가정은 물론 통일승강기운영사업소 그리고 락랑구역 도시시설관리소와 도시미화사업소를 비롯한 도시경영부문 종업원들의 가정…

구역당일군들이 이런 가정들을 먼저 찾은것은 어렵고 힘든 초소, 남들이 가기를 저어하는 곳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의 가정을 찾아 그들에게 인민의 복무자라는 긍지와 영예를 가슴한껏 안겨주자는데도 목적이 있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그들의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목소리에서 새로운 일감을 더 많이 찾자는데 있었다.

이런 마음을 안고 구역당일군들은 특류영예군인들, 도시경영부문 종업원들의 가정을 남먼저 찾았다. 구역당책임일군인 최봉준동무는 송성3동에 사는 특류영예군인 강성균동무의 집으로, 최정애동무는 통일거리3동에 사는 특류영예군인 백명남동무의 집으로…

그들만이 아니다.

구역당위원회 모든 일군들이 가정에서 마련한 물자를 안고 도시경영부문 종업원들의 가정을 찾았다.

웃음속에 찾고 기쁨속에 맞이하는 혈육의 정이 넘쳐나는 이런 가슴뜨거운 화목들이 100어세대의 가정들에 펼쳐졌다.

구역당일군들을 맞이한 주민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충혈진 두눈, 리갈라진 입술…

구역당일군들이라고 왜 명절을 자기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은 생각이 없겠는가. 지난해에 그들은 당의 뜻을 받들어 온 한해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그야말로 불같이 살아왔다. 얼마전에는 점검자들과 전쟁로병들 그리고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동원된 돌격대원들의 가정을 비롯한 친어세대의 가정을 찾아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다.

바로 이러한 그들이기에 명절 전날부터 밤을 새워가며 직관선전물을 만들고 주민들이 명절을 즐겁게 지내도록 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세웠으며 새해 첫날에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또다시 주민세대들을 찾았던것이다.

이런 뜨거운 사랑과 정을 안고 걸고걸은 구역당일군들의 발걸음을 따라 구역금기관 일군들도 한결같이 떨쳐나 가정방문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새해의 첫날에만도 구역일군들은 수백세대의 가정을 찾게 되였으며 주민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도 풀어주고 앞으로 해야 할 일감들을 더 찾게 되였다.

구역일군들만이 아니라 공장, 기업소는 물론 협동농장의 당 및 행정일군들도 종업원들과 농장원들의 가정들을 찾아가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명절의 한때를 보냈다.

구역당일군들의 발자욱은 자기들이 담당한 협동농장들이며 공장들, 주민들에게 전기공급과 물공급을 하는 배전소며 양수장들에도 그리고 승강기들이 있는 곳들에도 뜨겁게 새겨졌다.

이런 복무의 자욱은 다음날에도 이어졌다.

이제 명절기간이 끝나면 구역안의 일군들은 한자리에 모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다시금 뼈에 새기고 구역의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작전을 펼치게 되며 인민의 참된 충복으로서 헌신의 길을 또다시 걷게 된다고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새해의 행군길에 첫 걸음을 잘 내짚은 락랑구역당일군들이 뜻깊은 올해에 안아올 보다 큰 성과를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본사기자 장철범

탄부들을 위한 복무의 자욱

득장청년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첫 손님

양력설날이였다. 생활작업반 로동자 조성익동무는 인기척에 문을 열었다. 순간 그는 반가움에 앞서 놀라움을 감출수 없었다.

양력설날에는 의례히 일가친척들이 첫 손님으로 찾아오는것이 상례인데 뜻밖에 초급당일군이 찾아왔기때문이였다.

그의 손에는 갖가지 식료품이 들려있었다. 영예군인이라고 늘 마음을 쓰며 때없이 찾아와 정을 주군 하던 초급당일군이였다.

영예군인의 가족과 허물없이 자리를 같이한 그는 양력설을 쇠는데 혹 부족한것이 없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나서 언제나 건강을 잘 돌볼뿐만아니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몸마저 싸운 투쟁정신을 후대들이 이어가게 해야 한다고 절절히 말하였다. 그리고 영예군인의 가족과 함께 명절의 한때를 즐겁게 보냈다.

그 시각 초급당위원회 집행위원들과 파장이상 일군들을 비롯한 60여명의 당 및 행정, 근로단체일군들도 성의껏 마련한 물자를 가지고 채탄중대, 굴진소대의 막장에 들어가 탄부들을 고무해주었다.

그리고 저녁에는 초급당위원회 부위원장 강광혁동무를 비롯한 많은 일군들이 지성어린 물자들을 안고 탄부들과 종업원들의 가정을 찾아가 혈육의 정을 두터이하였다.

따뜻한 정

양력설날 아침 5경 채탄1중대 채탄공이였던 손정학동무의 안해는 여느때없이 쌀쌀해졌다.

온 집안이 모여앉아 즐겁게 보내던 양력설이였다.

200일전투기간에 순직한 남편을 생각할수록 가슴이 저려왔다.

그러나 그의 외로움은 곧 가셔졌다. 초급당위원회 집행위원인 지배인 전학철동무가 가정에서 기른 돼지와 명절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안해와 함께 운반장에 나갔던 길로 그의 집에 들렸던것이다.

그와 자식들의 눈가에 눈물이 핑 고여올랐다.

돌격대원들과 함께

양력설날 점심때가 되자 득장청년탄광 차광수청년돌격대병실은 여느때없이 흥성이였다.

초급당위원장 장헌철동무가 가정에서 마련한 김치송과 여러가지 물자를 가지고 3경 채탄1중대막장에 들어갔던 그 걸음으로 돌격대원들을 찾아왔기때문이였다.

물자들을 안겨주며 문화용품을 놓을 위치까지 잡아주는 초급당일군의 살뜰한 그 모습에서 청년돌격대원들은 끼고있는 자식보다 집을 떠나 생활하고있는 자식을 위해 더 마음쓰는 다심한 어머니의 정을 느꼈다.

그날 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밝혀주신대로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혁신자, 만리마속도의 창조자가 될 맹세로 심장을 뛰이였다.

새해 첫날 득장청년탄광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이 새겨간 헌신적복무의 자욱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추동력으로 되여 첫날 석탄생산계획을 200%이상 넘쳐 수행하는 전례없는 혁신이 창조되였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이 새해 진군길에 새긴 첫 자욱을 통해서도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비상히 앙양된 전당의 당일군들의 드높은 슴결을 가슴한껏 안아본다.

본사기자 손영희

새해 첫 전투부터 기세좋게 전진

승리의 신심 드높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 주체철생산 1.2배

언제나 강철로 우리 당을 억세게 받들어온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첫날부터 진군의 기상을 힘있게 떨쳐 주체철생산을 1.2배로 늘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속공업부문에서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철생산원가를 낮추고 주체화된 생산공정들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철강재를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합니다.》

경제전략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력과 금속, 화학공업부문이 기치를 높고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성강로동계급의 가슴가슴은 조국과 시대앞에 지닌 책임감으로 하여 불덩이마냥 달아올랐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성강로동계급의 투쟁정신과 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려는 그들의 뜨거운 열정은 일터의 곳곳에서 충정의 불길이 되여 타올랐다.

들끓는 현장마다에 위치를 정한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일군들은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로 생산자대중의 심장을 울리는 선전선동을 드세게 들이대여 전투현장을 투쟁열, 혁명열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당책임일군부터 주체철생산현장에서 로동자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주체철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현실적인 방도들을 토의하였으며 로동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 그들의 전투적사기를 부쩍 높여주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생산단위들을 하나씩 맡고 내려간 지배인 최일동무를 비롯한 행정일군들이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즉시에 기동적으로 풀어나가며 생산지휘를 혁명적으로 벌려나갔다.

일군들의 치밀한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는 주체철, 강철증산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한 밑불이 되여 첫날부터 쇠물폭포가 장쾌하게 쏟아졌다.

5월17일공장 주체철직장에서 새해 첫날 주체철생산을 1.2배로 늘이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새해 첫날부터 계획보다 더 많은 강철을 증산할 높은 목표를 내걸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섰다.

직장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정책의 요구대로 주체철생산공정의 운영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피다게 탐구하는 과정에 생산원가를 낮출수 있는 새로운 무연탄장입방법을 창안하고 도입하였다.

직장의 로동계급은 새해 첫날부터 새로운 무연탄장입방법에 의한 주체철생산을 믿음직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공정간 맞물림을 과학적으로 짜고들고 과학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주체철생산을 줄기차게 밀고나갔다.

특히 김영호교대에서 첫날 오후 4시에 계획보다 한차지의 쇠물을 더 쏟아내여 높이 세운 생산목표보다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음으로써 주체철생산실적을 1.2배로 올리는데 기여하였다.

주체철생산이 늘어난데 맞게 강철생산현장에서도 차지당 쇠물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었다.

1강철직장 2호, 4호, 12호 전기로에서는 교대가 교대를 돕는 집단적혁신의 불길속에 합리적인 용해방법들이 창안도입되고 제강시간을 단축하는 성과가 련이어 이룩되였다.

4호전기로 로장 윤장성동무는 로의 정상가동을 위한 사전준비를 빈틈없이 짜고들고 제강행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동성있게 풀어나가면서 용해공들의 투쟁기세를 높여주어 첫날에 3차지의 쇠물을 뽑아냈다.

생산단위, 보장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한사람같이 떨쳐나 생산현장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으로 로동계급의 새해 첫 전투를 크게 고무해주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5개년전략고지에 남먼저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새해의 첫날부터 성강로동계급이 쏟아낸 쇠물폭포는 우리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꽃피우는 승리의 축포로 이어질것이다.

본사기자 리철옥

첫 하루동안 근 7 000t의 석탄을 증산

석탄공업부문의 각지 탄광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2017년 신년사를 무한한 격정속에 받아안은 각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이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새해 첫 전투부터 석탄증산의 조성을 높이 올리고있다.

2일현재 석탄공업성적으로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지 탄광들에서 1일 하루동안에 지난해 첫날 전투때보다 근 7 000t의 석탄을 증산하는 비약적인 생산실적이 기록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는 발전소와 금속, 화학공장들의 석탄과 수송수요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석탄공업부문의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발전소와 금속, 화학공장들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기 위한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포문을 일제히 열고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있다.

석탄공업성 책임일군들과 정무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그달음으로 각지 탄광들로 달려나가 지하막장들에 전투지휘소를 정하고 단위일군들, 탄부들과 함께 뜻깊은 새해의 총공격전을 과감하게 벌려나가고 있다.

총정의 70일전투, 200일전투 전형단위의 영예를 정위한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와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탄광들에서 첫날 석탄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득장청년탄광, 룡산탄광, 평학탄광과 남덕탄광, 인포탄광을 비롯한 탄광들에서 첫 하루동안에 많은 석탄이 생산되여 대동력기지에 높이 올리는 비약의 슴결을 더해주었다.

우리 당이 내세운 자강력제일주의로 만장약하고 지난해 4.5㎥이동식압축기를 개발하고 능률높은 버력적재기를 제작한것을 비롯하여 백수십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생산에 도입한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탄광들에서 높은 증산실적이 기록되였다.

자강도공급탄광, 개천탄광, 조양탄광, 신림탄광, 무진대청년탄광, 원리탄광에서 높이 내세운 새해 첫날 전투목표를 돌파하고 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석탄을 보내주었다.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 함남지구탄광련합기업소, 경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평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석탄생산실적도 뚜렷하다.

장서탄광, 삼신탄광, 금야청년탄광, 전천탄광, 사리원탄광에서도 새해 첫날전투에서 흐뭇한 생산실적이 기록되였다.

첫날전투에서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한 각지 탄광일군들과 탄부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2017년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일념을 안고 지하막장마다에서 총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인포탄광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개발창조형의 생산기술공정확립에 성과의 비결이 있다

안주뽐프공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생산단위와 과학연구기관들사이의 협동을 강화하며 기업체들에서 자체의 기술개발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확대와 경영관리개선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로 경제발전을 추동하여야 합니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가 열린 지난해 안주뽐프공장에서 전례없는 생산실적과 함께 눈에 띄는 기술적진보가 이룩되였다.

500여개 규격의 각종 뽐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면서 공장에서는 인민경제계획보다 800여대의 뽐프를 증산하여 1988년이래 최고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한해에 몇개의 새 제품개발에 머물렀던 공장에서는 지난 한해에 려명거리 살림집건설장들과 지하초염수생산기지들, 장지리바다물수송관, 바다물정화시설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수십종의 새 뽐프들을 개발하여 생산보장함으로써 자강력제일주의의 정당성을 실천으로 투철이 증명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려명거리 살림집건설장, 지하초염수생산기지를 비롯한 중요대상에서 요구하는 뽐프들은 아직까지 공장에서 생산해본적이 없는 새로운 품종의 뽐프들이였다. 하지만 공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짧은 기간에 높은 기술적성능을 요구하는 뽐프들을 우리 식으로 개발한데 이어 그 제련생산도 보장하여 중요대상들에 제때에 보내주었다.

특히 바다물정화시설공사에 필요한 새형의 뽐프는 개발과 생산이 동시에 진행되여 불과 며칠동안에 전량을 생산보장하는 기적적성과가 이룩되였다.

새 제품개발과 그 생산도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된 이러한 성과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해 5월, 려명거리건설장에 각종 규격의 능률높은 뽐프들을 최단기일안에 생산보장해야 할 임무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그러한 뽐프들은 공장에서 여태껏 생산해보지 못한 품종으로서 지난 시기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제품개발과 생산에 근 1년은 걸려야 했다.

하지만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속에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우후죽순처럼 살림집들이 창공높이 솟구쳐오르는 려명거리건설장의 벅찬 현실은 기존관념을 타파할것을 요구하고있었다.

반년 아니 그 절반으로 기일을 줄여야 한다.

지배인 리제봉동무의 심장은 이렇게 고동쳤다. 당이 정해준 기간에 뽐프생산과제를 무조건 수행하자면 제품의 개발과 도입, 생산기술공정을 모두 혁신해야 하였다.

얼마후 당조직의 지도밑에 진행된 긴급협의회에서는 제품개발과 생산기술공정을 혁신하기 위한 문제들이 집체적으로 토의결정되였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을 끄는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새 제품개발을 담당한 설계연구소, 기술발전과와 함께 기술과, 품질관리과와 같은 공장의 전반적부서들의 사업이 새 제품개발 및 도입에 지향되도록 혁신한것이다.

실례로 지난 시기 기술과의 현장기사들은 제품개발은 기술발전과나 설계연구소가 하는것으로 여기면서 현행생산과 관련된 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만 치우쳤다. 새 제품에 대한 개발심의가 끝나 해당 설계와 기술자료들이 넘어오면 그에 대한 파악을 하느라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야 해당한 지구와 목형들을 제작하느라 오랜 시간이 지체되여서야 제품생산에 들어갔었다.

생산과 제품개발을 담당한 부서들사이의 이러한 제선은 시대적요구에 맞게 제품개발과 도입에서 더 거둘수 있는 성과를 억제하고있었다.

공장일군들은 이러한 편향을 극복하고 제품개발과 생산을 일체화하기 위하여 우선 기술과의 현장기사들을 새 제품개발사업에 망라시키였다. 현장에서 뽐프생산경험이 풍부한 현장기사들이 설계연구소의 연구사들과 함께 창조적혜를 합치게 되니 새형의 뽐프생산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이 순조롭게 해결되였으며 설비의 제작을 줄이면서도 성능을 높이고 제작시간을 단축할수 있는 혁신안들이 적극 반영되게 되였다.

공장에서는 기술발전과의 직능도 개선하도록 하였다.

새 제품의 설계단계, 심의단계는 물론 도입 및 제련생산의 모든 공정들에 대한 기술준비사업을 알짜리 풀어나갈수 있도록 일군들에 대한 사업분담을 명백히 하였다.

공장의 모든 기술력량이 분발한 결과 제품개발사업이 보다 활력있게 진행되였다. 특히 공장과학기술심의도입사업을 책임진 지배인이 이 사업을 참모부서에 방임하지 않고 직접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유기적인 현관속에 풀어나간것이 시사하는바가 크다.

당이 정해준 기간에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뽐프생산과제를 무조건 수행하려는 일군들, 연구사들, 기술자들의 헌신적이며 창조적인 투쟁은 빛나는 결실로 이어지였다. 1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려명거리건설장에 보낼 여러 규격의 새 품종의 뽐프설계가 완성되였다.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집체적협의속에 개발심의가 결속되고 지체없이 생산에 넘어감으로써 대상설비생산이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결속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당정책의 운명이 자기들의 어깨에 놓여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일군들이 부단히 머리를 쓰고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드는 이러한 나날에 공장에는 새 제품개발과업이 제기되면 즉시에 설계가 완성되고 생산에로 이행하는 정연한 사업체계가 확립되게 되였다.

공장일군들의 사업은 당정책의 요구대로 자력자강의 정신을 만장약하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색하면서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동해나갈 때 만리마시대의 창조대전에서 승리자가 될수 있다는것을 투철이 보여주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과학기술의 힘으로 비약의 도약대를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에서

도시경영성 중앙양묘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심장으로 받들고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수준을 더욱 높여 양묘장을 산림복구전투승리를 담보하는 믿음직한 나무모생산기지로 변모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복구사업은 엄혹한 자연속에서 어린 나무모를 키워 심고 해를 이어가며 가꾸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나라의 모든 산들을 보물산, 황금산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입니다.》

산림복구전투에서 나무모가 총포탄이라면 양묘장은 그것을 보장하는 군수공장과 같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해 지배인 박호철, 기사장 박만범동무를 비롯한 양묘장의 일군들은 한해에 100만여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실천을 위한 사업을 방법론적에 내밀었다.

수종별에 의한 포전관리를 실천한 사실을 놓고보자.

지난 시기 양묘장에서는 한개의 포전에서 여러 수종의 나무모들을 키워내고있었다. 그러다보니 수종별에 따라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영양관리와 기술관리를 제대로 할수 없었다. 실례로 꽃관목과 나무가 함께 있으면 키가 큰 나무에 의해 꽃관목에는 그늘이 생겨 빛합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잘 자라지 못하게 된다.

결과 수종별에 따라 나무모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데 적지 않은 지장을 주었고 나무모생산량도 제한되였다.

이 사실을 놓고 일군들의 생각은 깊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총포탄이 보장되지 않으면 전투에서 승리할수 없는것처럼 양묘장들에서 나무모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지 못하면 산림복구전투를 성과적으로 벌릴수 없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당의 뜻을 심장에 새길수록 현실적조건에 맞게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묘술을 부단히 탐구하고 적용해나가지 못한다면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였다.

잣은 교훈이 클수록 더욱 분발하게 되는 법이다.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해결방도를 찾아나갔다. 이 과정에 나무모생산을 집약화하자면 결정적으로 포전을 규격포전으로 만들고 거기에 수종별로 나무모들을 배치하여야 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방도를 찾아낸 일군들은 100여정보의 포전들을 규격포전들로 정리하고 포전마다 수종별로 나무모들을 재배할 높은 목표를 세웠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이들은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맞받아뚫고나가며 짧은 기간에 포전정리를 끝내였다. 결과 바둑판처럼 펼쳐진 규격포전들에서 수종별에 따라 나무모들을 집약적, 과학기술적으로 키울수 있게 되였다.

이렇게 하니 좋은 점들이 있었다. 우선 모든 포전들이 규격포전들로 변모되여 그전에 비해 수만그루의 나무모들을 더 자래울수 있었다. 또한 수종별로 포전관리를 할수 있어 나무들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영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튼튼한 나무모들을 생산할수 있었다.

다음으로 나무모생산에서 일군들이 중시한것은 선진적인 재배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인것이다.

지난 시기 양묘장에서는 수삼나무, 스트로브스소나무, 넓은잎정향나무 등을 삽목하는 방법으로 나무모를 생산하였다. 그러다보니 재배면적이 제한된 조건에서 생산량을 늘이지 못하였다. 생산성을 높이자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이곳 일군들은 나무모는 전쟁승리를 담보하는 총포탄과 같으므로 품을 들여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고 해당 부문의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해결방도를 찾기 위해 피타는 사색과 탐구로 낮과 밤을 이어나갔다. 그리하여 이들은 끝끝내 삽목하는 방법으로밖에 생산하지 못한다고 하던 수삼나무, 스트로브스소나무, 넓은잎정향나무 등의 나무모들을 씨앗번식시키는 방법으로 한해에 20여만그루나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게 되였다.

또한 나무모생산공정에 대한 통합조종체계를 확립하여 강질유리온실을 비롯한 여러 호동의 온실을 현대적으로 꾸리였다.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건설된 강질유리온실에서는 종합조종실의 플러로 온도와 습도, 빛세기 등을 조종하면서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모들을 키우고있다.

현실은 산림복구전투의 승리는 양묘장에서부터 마련된다는 관점에서 튼튼한 나무모들을 키워 사름률을 높이는 사업에 힘을 넣어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전명일

조선인민군 제4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조선인민군 제4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이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김보현선생님과 리보익녀사의 묘,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녀사의 묘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묵상하였다.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고 유서깊은 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력사의 집에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그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기였다.

회의참가자들은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태양의 해발이 되시여 수령절사옹위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고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놓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묵상하였다.

렬사릉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실현에 한몸바친 항일혁명렬사들의 고결한 넋을 꿋꿋이 이어나갈 굳은 의지에 넘쳐있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회의참가자들은 락철한 령군술로 세계《최강》을 떨쳐보인 미제를 때려부시고 세기를 이어온 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아로새기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새겨하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이룩된 사상의 승리, 전략전술의 승리, 정신의 승리라는것을 다시금 새겨안으며 그들은 전화의 영웅전사들의 투쟁정신과 넋을 이어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방인 수산전선의 앞장에서 황금해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나갈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회의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과 21세기 주체적건축예술의 척도가 응축된 과학기술전당을 참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과학기술전당이 세상에 들도 없는 새 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일떠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그들은 과학기술의 기관차를 앞세우고 사회주의강국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를 깊이 새겨안았다.

회의참가자들은 세계적수준의 문화정서생활거점, 교육거점인 자연박물관, 중앙동물원을 돌아보았다.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속에 평양체류의 나날을 보낸 조선인민군 제4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은덕을 한생토록 간직하고 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뜻깊은 올해 물고기잡이전투에서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어로신화를 창조해나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군 제4차 수산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 중앙동물원 참관

고려청자기를 통해 본 우리 민족의 우수성

평양미술종합대학 교육자들과 나눈 이야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일찍부터 뛰어난 예술적재능과 슬기를 지닌 민족으로 이름높은 조선민족의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려청자기를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얼마전 우리는 민족의 자랑인 고려청자기와 관련하여 평양미술종합대학 교육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고려청자기의 발생발전과정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으면 한다.

공예학부 학부장 박룡운: 원시시대때 출현한 토기는 고대시기에 높은 소성기술이 확립되면서 도기로 발전하게 되였다.

도기는 중세기에 자기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고려초기에 청자기가 생산되였다. 특히 청자기는 11~12세기에 전성기를 이루었고 13~14세기에도 그 우수성을 살리면서 발전하였다.

기자: 고려청자기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지도교원 한원일: 고려청자기는 표현형식에 따라 순청자기, 새김청자기, 상감청자기 등으로 구분한다. 순청자기는 고려청자기제작초기에 보급된 자기로서 겉면에 아무런 장식도 없이 청자기유약만 입혀 구운 자기이다. 새김청자기는 겉면에 오목새김, 돋을새김, 뚫음새김의 방법으로 무늬를 장식한 자기이다. 상감청자기는 소지바탕면을 파고 바탕색갈과 다른 색갈의 소지로 메꾸어 무늬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장식한 자기이다.

기자: 고려청자기의 우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싶다.

박룡운: 고려청자기의 우월성은 크게 세가지로 볼수 있는데 형태, 색, 무늬장식이 독특한것이다. 도자공예에서는 그 형태 하나만을 가지고도 그것을 창조한 민족의 정서와 미감, 취미, 생활풍습을 충분히 엿볼수 있다. 고려청자기의 형태를 이룬 몰곡선들은 부드러우며 률동적이다. 또한 형태가 다양하고 참신하다. 특히 기발한 착상에 의하여 형태구성이 이루어진 고려불상형청자기는 실제한 어떤 물체를 보는듯 한 생동한감을 주며 하나하나의 요소를 다 심용적인 구조와 잘 어울리게 형상하였다.

고려청자기의 색은 이미 잘 알고있는 청색 혹은 자연속에서 쉽게 찾아보게 되는 색채와 같지 않은 신비로운 색을 띠고있다. 일명 비색자기라고도 하는 고려청자기는 고려자기의 상징으로 되고있다.

세상사람들이 고려청자기를 보물처럼 귀중히 여기는 리유도 독특한 비취색에 있다고 할수 있다. 고려청자기색은 에로무러 밝고 선명하고 은근한것을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취미, 기호를 반영하고있는 예술적으로 완벽한 색채라고 할수 있다.

고려청자기의 장식무늬들은 우리 나라의 산과 들 어디서나 볼수 있는 동식물 등이 단독무늬, 련속무늬로 형상되여있다. 마치도 수정같이 맑은 물속에서 하얀 차돌을 들여다보듯이 청자유약속에서 은근하게 느껴지는 장식무늬는 형태, 색과 하나의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상감장식수법은 다양하지만 흔히 보게 되는것은 동그라미안에 꽃이나 학을 그려넣어 표면에 물고루 배렬하고 그의 공간을 구름, 들국화로 장식한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고려상감장식기법은 오직 우리 나라에만 있는 기법이다.

고려청자기는 형태와 장식무늬, 청자색이 조화를 이루어 도자공예의 극치를 펼친것으로 하여 당대는 물론 오늘에 와서도 민족의 명물로 되고있으며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고있다.

고려청자기를 두고 세상사람들은 누구라없이 《세계적인 천하일품》, 《세계의 일등예술품》, 《조선의 고려청자기가 세상에서 으뜸》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있다.

기자: 세상에 널리 알려진 우리 고려청자기는 어떻게 계승발전되고있는가?

한원일: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일제가 파망하면서 파괴하여놓은 도자기공장들을 지체없이 복구하도록 많은 자금을 돌려주시였으며 공장들을 찾고찾으시며 고려청자기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수대창작사에 도자기창작단을 내오도록 하시고 창작에 필요한 설비와 기공구 등을 현대적인것으로 보장하도록 하여주시였다.

또한 평양미술대학(당시)에 공예학부를 내오는것과 함께 고려성균관을 비롯한 교육기관들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양성하여 도자공예창작기관들에 보내주어 고려청자기창작과 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오늘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고려청자기는 날로 더욱 개화발전하는 주체미술의 자랑찬 전성기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뛰여난 슬기와 재능을 온 세상에 더욱 긍지높이 과시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기자: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이다.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우수한 문화전통을 깊이 빛내여주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아래 조선의 자랑—고려청자기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더 높이 떨쳐갈것이다.

그 밤은 미래를 띠메고나갈 전도유망한 공예전문가들을 키워내기 위한 여러분들의 후대교육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본사기자 주령봉

체육선수후비선발 종합측정평가체계 개발

조선체육대학에서

우리 식의 체육선수후비선발 종합측정평가체계가 개발되였다.

조선체육대학에서 새로 개발한 체육선수후비선발 종합측정평가체계는 선수후비를 정확히 선발하고 선수들의 운동능력을 과학적으로 신속히 평가할수 있는 우리 식의 종합적인 운동능력측정평가체계로서 크게 운동지능평가체계, 육체적능력평가체계, 종목별적성체질평가체계로 구성되여 선수의 적성종목과 그 수준을 평가하는 체계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선수후비로는 머리가 좋고 육체적준비도 좋으며 종목별선수로서의 적성체질을 갖춘 대상들을 선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신동규, 황경민동무를 비롯한 조선체육대학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선수후비선발을 과학적으로 신속정확히 진행할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력량을 조직하고 이 사업을 적극 떠밀어주었다.

과장 윤성철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연구집단의 강과장 왕진혁, 실장 성경진동무들은 우리 식의 새로운 체계개발방향을 명백하게 세운데 기초하여 자료조사와 연구를 심화시키며 과학리론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선수들의 운동지능과 종합적인 육체적능력을 과학리론적으로 해명하는 동시에 측정장치들을 제작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람들을 개발하는 사업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연구집단은 여러가지 평가지표들에 따르는 자료기지구축과 프로그람들을 내놓기 위한 두뇌전을 줄기차게 벌리면서 탐구의 열정을 쌓고리 쏟아부었다.

이들은 해당 단위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장치제작전투를 벌리는 동시에 장치와 프로그람을 우리 선수들의 특성에 맞게 밀접히 결합시키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렸다.

부학장들인 김호철, 김혜권동무와 교원, 연구사들도 연구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해결에 적극적이며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면서 우리 식의 새로운 체계를 개발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20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불같이 이어온 연구집단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새로운 체육선수후비선발 종합측정평가체계는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개발될수 있었으며 지난해에 진행된 제20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 출품되여 높이 평가되였다.

2개의 장치와 프로그람들로 구성된 우리 식의 새로운 체육선수후비선발 종합측정평가체계가 개발됨으로써 해당 종목활동에 가장 우수한 선수후비와 국가대표선수평가 및 선정을 동시에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체육선수후비선발 종합측정평가체계의 개발은 과학기술을 기관차로 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는 속에 마련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로서 체육의 과학화를 다그치며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지혁철

새해를 맞으며 스승을 찾아 축하해주고있다.
—서성구역 장경2동 102인민반 박재연동무의 가정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끝없는 환희와 기쁨속에 명절을 즐겁게 보내고있다.
—정천구역 미래동 49인민반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독자의 편지

우리 보건제도가 제일입니다

지의 안해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에 입원한것은 지난해 6월초였습니다.

사실 입원전까지만 하여도 안해는 방광부위에 생긴 질병으로 하여 무려 10여년간이나 마음속고충과 생활상불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 의사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속에 수술도 받아보았지만 안해는 워낙 병이 깊다보니 완치되지 못한채 저와 자식들까지 속을 태우고있었습니다. 그 나날 안해는 다른 병까지 겹치여 나중에는 맥을 놓고 주저앉게 되였습니다.

바로 이때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림상제2의학부 비뇨기외과학강좌의 성길훈선생님이 안해의 병상태를 알아보고 자기 일처럼 안타까와하면서 수술을 직접 맡아나섰습니다. 이렇게 되여 안해는 다시 수술을 받게 되였습니다.

이룻 의료집단의 높은 의술과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마침내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였습니다. 수술후에도 담당의사선생님은 친혈육의 심정으로 저의 안해를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일생 고칠수 없다고 하던 병을 떨고 병원정문을 나서던 날 저와 안해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고마움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높은 의술과 지극한 정성을 지닌 참다운 의료일군들을 키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큰절을 드리고 또 드리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남포시 천리마구역 보봉동 140인민반 최명도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우러르는 경모의 마음

누구나 희망속에 맞이하는 새해의 아침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넘쳐난것은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민족의 앞길은 휘황찬란하고 조국통일의 려명도 밝아온다는 확신이다.

새해를 맞이한 남녘인민들은 삼가 옷깃을 여미고 북녘하늘을 우러르며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축원의 인사를 드리였다.

《민족의 하늘이시고 겨레의 운명이신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민족의 존엄이 빛나고 민족자주통일과 강성번영의 창창한 앞날이 기약되여있습니다. 민족의 운명과 미래는 원수님께 달려있습니다.》…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걸음걸음 짓부시며 민족의 존엄을 꿋꿋이 지켜주시고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남녘겨레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는 정녕 뜨겁고 열렬하다.

안팎의 반통일세력이 아무리 기승을 부리며 동족대결의 찬바람을 몰아와도 남조선인민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이 위대한 품을 찾아, 태양의 품을 찾아 위인칭송의 대하를 이루며 끝없이 흐르고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온 민족이 우러러따르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이렇게 칭송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탁월한 사상리론적풍모와 높은 령도적자질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 그분은 진정 온 세계가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우러러보게 하겠다는 배짱을 지니신 또 한분의 위대한 백두령장이시다.》

남조선의 한 정치인은 모임에서 《예지로 빛나는 눈빛, 천지풍파에도 드놀지 않을 억센 기상, 력사의 광풍을 단매에 쳐갈길 불굴의 담력과 배짱, 세계를 굽어보는 명장의 태연자약한 모습…

정녕 김정은최고령도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령도력을 그대로 체현하신 위대한분이시다.》라고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서울의 한 정치학교수도 《최근 세계의 관심은 김정은최고령도자께로 모아지고있다. 그분의 정치는 백두산위인들의 선군사상과 리념, 방법론에 기초하여 펼쳐질것이다.

그분께서는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해놓으신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여 제국주의세력의 도전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신다. 령도자와 인민이 굳게 결합되여있는 북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나아갈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남조선의 한 인터네트신문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정치활동은 세계정치계의 초점으로 국제사회의 커다란 관심을 받아왔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검색기능을 가진 인터네트검색전문싸이트에는 김정은최고령도자에 대한 보도자료가 수십만건씩이나 올랐다.

이처럼 세계언론이 관심을 집중한 정치인은 력사상 있어본적이 없을것이다.》라고 소개하였다.

남녘의 도처에서 울려나오는 이러한 목소리들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 령활한 지략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기대와 관심, 신뢰의 정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령도적풍모와 정치실력으로 포악한 제국주의침략세력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조국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그이의 천리혜안의 예지, 예리한 분석력과 판단력, 단호한 결심과 대담한 실천,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공격정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림기응변의 지략은 온 세상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참으로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최상최고의 영광이며 긍지이고 자랑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적풍모와 자질을 열렬히 칭송하면서 우리 공화국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확신하는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서울의 한 주민은 자기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세계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찬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분께서 다녀가신 곳곳마다에는 인민사랑의 대화원이 현실로 꽃펴나고있으며 인민들은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민족의 어버이로 믿고 따르고있다.》

남조선의 한 인사는 《조선의 강대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기 령도자를 어버이로 따르는 불같은 충정의 마음들, 오직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밖에 모르는 소박하고 진실한 마음들이 하나로 뭉친것이 조선의 진짜힘이요, 진짜모습이다. 바로 그것이 조선의 강대함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여 이북의 미래는 창창하며 온 겨레의 한결같은 숙원인 조국통일의 새 아침도 반드시 밝아올것이다.》라고 아낌없는 찬사를 퍼치였다.

그뿐이 아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이북의 일심단결의 모습에서 통일된 조국, 우리 겨레의 래일을 보고있다.

그 위력으로 이북은 카까운 앞날에 세계에 빛을 뿌리는 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를것이다.》라고 한 부산의 통일운동단체성원, 《무적필승의 명장에서 계시여 우리 겨레는 언제나 이기며 력사에 무궁번영할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될것이다.》라고 한 남조선의 언론인, 진정 그들의 목소리에는 온 겨레가 운명도 미래도 모두 의탁해야 할분은 오직 한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뿐이시라는 절절한 흠모의 마음들이 응축되여있다.

해내외의 온 겨레는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이 영원히 높이 모시고 따라야 할 민족의 절출한 령도자,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라는것을 심장으로 확신하였기에 이렇게 웨치고있다.

《조국통일의 날은 멀지 않다. 겨레들의 단결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북반은 민족의 긍지와 자부를 안고 김정은최고령도자님을 일심으로 받들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는 한 민족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

본사기자 장 일 향

조국번영, 민족부흥의 진로를 밝혀준 승리의 기치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은 총련교육일군 격동된 심정 토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무한한 격정속에 접한 하민일 총련조선대학교 학부장이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뜻깊은 주체106(2017)년 새해를 맞이한 조국땅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받아안은 나의 심정은 끝없는 격정으로 끓어번지고있다.

텔레비존화면을 통하여 신년사를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뵈오니 탁월한 령도자의 천출위인상이 안겨와 민족적자긍심이 더욱 커지고 새 힘이 용솟는다.

그이께서 북과 남, 해외에 사는 조선민족모두에게 뜨거운 정이 넘치는 새해인사를 보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민족성원전체의 축원의 인사를 받으셔야 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의 아침에 온 겨레를 먼저 축복해주시니 우리 원수님 같으신분이 이 세상 또 어디 있겠는가.

이역에선 차디차면 1월의 날씨도 친어버이의 뜨거운 열파정이 차넘치는 조국땅에서는 따뜻한 봄날처럼 느껴진다.

지구상에는 수억을 헤아리는 해외교포들이 있지만 우리들처럼 한없이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의 품속에서 대를 이어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해외동포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

정녕 애국애족의 빛나는 정표를 펼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품은 전체 해외동포들이니 온 민족이 안겨살 위대한 태양의 품이다.

하기에 우리 재일동포들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더 높이 떨치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집대성되여있는 신년사를 심장깊이 새겨안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신년사를 자자구구 새길수록 더욱 무궁번영할 사회주의조국의 휘황한 미래와 민족의 창창한 장래를 굳게 확신하게 된다.

세인을 놀래우는 세기적인 기적과 영웅신화들을 련이어 창조하며 온 한해를 진감시킨 우리 조국의 빛나는 모습을 그려보니 위대한 나라, 강대한 민족의 한 성원이라는 긍지와 영예로 가슴벅차오른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는 조국번영, 민족부흥의 진로를 밝혀준 승리의 기치로 해내외 전체 조선동포들의 마음을 억세게 틀어잡고있다.

민족의 원쑤들과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제아무리 발광하여도 천하제일명장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선군조선의 2017년은 조국력사에 특기할 자랑찬 승리의 해로 아로새겨질것이다.

우리 총련의 교육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만리마의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조국인민의 숨결에 보폭을 맞추어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겠다.

【조선중앙통신】

일본당국과 괴뢰패당의 조선학교차별정책을 규탄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우리 학교와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시민모임》이 지난해 12월 30일 남조선주재 일본대사관앞에서 100차 기자회견을 가지고 재일조선학교들에 대한 차별정책을 철회할것을 일본당국에 요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일본당국이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하는 정책을 집요하게 강행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들도 이러한 조치를 차별로 규정하였지만 일본당국이 이를 무시하고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지어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방자치체들에 조선학교들에 대한 보조금지급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통지문까지 내려보냈다고 비난하였다.

법적으로 인정된 조선학교들에 대해 차별적조치를 취하는것은 청소년들을 제도적으로 차별하는 범죄이자 인권유린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남조선 《정부》도 재일조선학교들에 대한 차별에 침묵하고 오히려 《국적변경》을 강요하는 등으로 사실상 일본당국의 탄압과 차별정책에 협력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남조선야당들 《국정력사교과서》의 폐기를 주장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야당세력이 지난해 12월 27일 《국정력사교과서》의 폐기를 주장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정부》의 부당한 력사외곡시도는 이미 《대통령》과 함께 심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국정력사교과서》는 폐기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교육부가 《국정력사교과서》의 적용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한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자기들의 잘못을 다음기 《정부》에 떠넘기기 위한 알은 술책으로서 결코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국민의 당 대변인은 《정부》가 여론을 무시하고 《국정력사교과서》의 보급을 선언하였다고 하면서 자격을 미달한 교과서에 의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오기때문에 이것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변인도 《국정력사교과서》를 《옳바른 력사교과서》라고 우기면서 제멋대로 적용하려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국정력사교과서》 금지법안을 신속히 상임위원회를 통해 처리하며 교육부 장관의 해임도 요구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국민의 당 의원도 교육부의 알은수를 저지시키고 《국정력사교과서》를 반드시 폐기시킬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민족성을 지켜나가는 길에서

동포들의 사랑받는 예술인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금강산가극단과 지방가무단들은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자라난 주체적해외민족예술부대답게 동포들의 정서와 심리에 맞는 예술활동을 힘있게 벌려 동포들에게 조선민족의 넋을 깊이 심어주고 그들의 애국열의를 고조시켜나가야 합니다.》

재일동포들의 가슴속에 슬기롭고 자랑높은 조선민족의 고유한 민족성을 심어주기 위한 민족문화예술활동에 힘써오고있는 예술단체들가운데는 지난해에 창립 50돐을 기념한 총련후꾸오까조선가무단과 효고조선가무단도 있다. 총련의 미더운 선전대, 애국위업의 나팔수로서의 사명감을 안고 가무단성원들은 《우리가 가는 곳에 민족의 노래와 춤이 있다.》라고 하면서 동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가림없이 찾아가 민족의 노래와 춤무대를 펼치며 동포들에게 힘과 용기, 웃음과 광명을 안겨주어왔다.

총련 효고조선가무단은 수많은 재능있는 예술인들을 배출한 이름있는 단체이다. 재일동포들은 물론 조국인민들속에도 널리 알려져있는 총련 금강산가극단 인민배우 리영수동포도 이 가무단출신이다. 지난 기간 가무단은 동포들의 심장에 애국의 불을 달고 동포사회에 민족성고수의 열풍이 휘몰아치게 하는 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수많이 창작공연하여왔다. 가슴마다에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 애국의 자각을 심어주는 공연,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는 이 가무단의 공연은 동포들의 애국적열의를 발양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토록 미더운 가무단에 대한 지역동포사회의 사랑과 성원도 날로 더욱 뜨거워지고있다. 몇해전에 결성된 효고조선가무단후원회는 가무단에 대한 후원사업을 강화하고있다.

총련 후꾸오까조선가무단도 빛나는 단체이다. 이 가무단은 지난 기간 동포들이 있는 곳은 다 우리의 공연무대라고 하면서 후꾸오까현내는 물론 규슈지역의 모든 현들과 지어 멀리 오끼나와에까지 가서 공연활동을 벌림으로써 각지 동포들로부터 우리 가무단이라는 정다운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였다. 그 나날 때로는 운동장바닥에서, 때로는 화물자동차우에서 공연하여야 하였지만 《동포들이 모이는 곳이 가장 훌륭한 무대였고 동포들의 웃음이 삶의 보람이였다.》라고 단원들은 긍지높이 추억한다.

가무단의 3대 단장이였던 리주성동포는 중급부까지 일본학교를 다닌것으로 하여 공연시 우리 말 발음이나 억양때문에 애를 먹었다고 한다. 무궁한 노력끝에 그는 그 모든것을 극복하고 어엿한 예술인으로 자라났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기도 한몫한다는 믿음으로 가무단에 대한 지역동포사회의 사랑과 성원도 날로 더욱 뜨거워지고있다. 몇해전에 결성된 효고조선가무단후원회는 가무단에 대한 후원사업을 강화하고있다.

민족의 슬기를 떨치며

뜻과 혼의 예술인 서예는 사람들의 문화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특히 동포사회에서 민족문화의 전통이 굳건히 이어지게 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 그래서 일본 각지의 동포사회들에는 많은 서예소조들이 있다. 특히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에 발족한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문예동) 도꾜지부 서예부의 활동은 동포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다. 여기에는 10대로부터 70대까지 각이한 나이의 성원들이 망라되여있다. 그들은 매달 1번씩 정상적으로 연구발표회를 가지고 고전서체로부터 현대서체에 이르기까지 우리 글 서체들을 꾸준히 습득하고있다. 《대지는 흔들려도 웃으며 가자》, 《전하고싶은 소중한 말》, 《하나》, 《정화》, 《꿈》 등 그들이 창작하는 작품의 주제도 다양하다. 하나의 글자, 한개의 점에도 심오한 뜻과 사상, 아름다운 민족성이 정서적으로 안겨오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바친 노력과 열정의 낮과 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발족당시부터 활동하여오는 강정내녀성은 우리 말과 글이 선조들과 자신을 이어주는 정서의 뿌리라고 말한다. 현재 서예부장으로 활동하는 김충미녀성도 서예창작활동을 하면서부터 동포사회와 민족, 조국에 대한 생각을 더욱 깊이하게 되였다고 말한다.

어머니 내 조국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크나큰 민족적자부심, 애국위업과 민족교육에 대한 끝없는 열정, 절절한 조국통일념원을 원숙하면서도 활달한 필치로 형상한 그들의 작품들은 동포들의 심금을 울려주고 애국운동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허 영 민

친일굴종행위를 규탄하는 투쟁 전개

보도들에 의하면 일본과 남조선사이에 치욕스러운 성노예문제《합의》가 이루어진지 1년이 된것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지역에서 괴뢰당국의 친일굴종행위를 규탄하는 투쟁들이 전개되였다.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앞에서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과 각계층 시민들, 정치인들 등 2 000여명이 수요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로 국민은 전에 얼던 아픔과 슬픔속에서 한해를 보내야 했다고 개탄하였다.

당국이 일본과 졸속적으로 《합의》를 이룬것이야말로 박근혜식정치통락의 진행이라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그들은 《대통령을 믿은것이 우리의 불찰》이라고 하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과거의 묵은것을 청산하고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당국이 그날의 《합의》를 즉시 폐기하고 《화해, 치유재단》을 즉시 해체하며 성노예문제의 옳바른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인정과 사죄를 받아내야 한다고 하면서 12.28《합의》 폐기를 위한 행진은 계속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한일〈합의〉무효》, 《박근혜 즉각 퇴진》, 《윤병세 즉각 퇴진》 등의 구호를 웨치며 괴뢰외교부를 향해 행진하였다.

분노한 시민, 대학생들이 폭압에 맞서나서자 파쑈경찰은 할수없이 뒤로 물러나 동구청을 소녀상철거에로 내몰았다.

동구청측이 철거장비와 직원들을 내몰아 강제철거에 나섰고 경찰은 13개 중대로 주변을 포위한채 소녀상을 지키는 시민들과 대학생들을 강제로 끌어내며 그들을 해산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외교부앞에 도착한 시위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무효를 위한 시민행동집회를 가지고 《합의》추진과정의 공개, 박근혜와 윤병세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부산 동구에서는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추진위원회와 각계층 시민들이 집회를 가진 후 주변의 일본영사관앞에서 소녀상을 기습적으로 설치하는 운동을 벌렸다.

168개 단체, 19개 학교, 5 000여명 시민들의 모금으로 제작된 소녀상이 영사관앞에 세워지자 파쑈경찰이 그것을 저지시키려고 달려들었다.

시민, 대학생들은 《친일경찰 물러가라.》, 《강제철거 중단하라.》, 《일본의 눈치를 보아서는 안된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그러는가.》고 웨치며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이날 파쑈경찰은 《소녀상을 철거하지 말라.》, 《학생들을 련행하지 말라.》고 웨치던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동의장을 포함한 무려 13명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련행하고 끝내 소녀상을 철거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

집회에 앞서 시민들은 동구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본영사관의 눈치를 보면서 소녀상설치를 반대하는 구청당국을 규탄하였다.

전라북도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전주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성노예문제《합의》의 무효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기를 주장하였다.

평화의 소녀상건립 정읍시민추진위원회는 정읍시에 전라북도에서 네번째로 소녀상을 세웠다.

《일본군위안부한일〈합의〉무효화 경남행동》은 경상남도 창원에서 《합의》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1년전의 《합의》가 《상처치유》명목의 《재단》설립과 모호한 성격의 10억￥으로 반인륜적범죄국가인 일본의 죄악을 눈감아주는것으로서 명백히 력사의 진실을 지우려는것이라고 단죄하였다.

대구평화의 소녀상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소속 성원들은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졸속적으로 처리한 성노예문제《합의》의 파기와 무효를 주장하면서 《정부》가 일방적인 《화해, 치유재단》사업을 중지하라고 요구하였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울산행동》은 울산의 소녀상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피해자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합의》는 현 식물《정권》이 떴은것으로서 즉시 폐기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광주의 민주광장에서 수요집회를 가진것을 비롯하여 괴뢰당국의 친일사대행위를 규탄하는 투쟁이 여러 지역에서 일제히 전개되였다.

이날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야권내에서도 울려나왔다.

대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의회》의원들이 소녀상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는 《합의》는 존재할수 없으며 반드시 폐기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 충청북도당 녀성위원회 성원들도 청주의 소녀상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의 막후실세인 최순실이 《합의》에 개입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합의》의 전면무효, 재협상을 요구하였다.

《종북》몰이반대투쟁을 새해에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남조선언론이 주장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지난해 12월 29일 당국의 《종북》몰이책동을 규탄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종북》몰이가 박근혜《정권》의 통치방식이자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라고 주장하였다.

박근혜패당이 공작정치와 《종북》몰이로 언론을 장악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으며 정세강연을 한 《국회》의원에게 9년간의 실형을 선고하게 하였다고 사설은 규탄하였다.

《종북》몰이를 단죄하지 못하면 야당의 《대통령》후보가 《북과 련계된 고정간첩》이라는 황당한 루명을 써야 하는 기형적인 현실이 반복될것이라고 사설은 지적하였다.

사설은 공작정치와 《종북》몰이의 사령탑인 청와대가 특검의 수사대상이 되였지만 주역인 정보원이 여전히 버티고있다고 단죄하였다.

12월 27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황교안과 당국이 정보원에 싸이버안보의 전권을 쥐여주는 법안을 의결하였다고 사설은 규탄하였다.

법안을 내놓은 취지에 대해 정보원이 《북의 싸이버공격 대응체계 마련》을 내세우고있지만 실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대한 사상검증을 해보려는 지속한 의도가 보인다고 사설은 폭로하였다.

사설은 초불투쟁을 승리에로 이끌고 성과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도 당국의 《종북》몰이를 단죄해야 하며 이를 위한 투쟁을 새해에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대형추문사건의 진상을 덮어버리려는 비렬한 행위

남조선 《뉴스1》에 의하면 박근혜역적패당이 특대형부정추문사건의 진상을 덮어버리기 위해 획책하고있는 가운데 청와대 전 비서실장 김기춘이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 내막이 담겨진 핵심자료들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26일 《국정》 롱락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있는 특별검사조가 문화예술계의 요시찰명단작성에 련루된 핵심관계자들의 집과 사무실 등을 수색하였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김기춘의 집을 수색한 결과 그가 이미전에 자료를 빼돌려 증거를 없애버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였다.

김기춘의 이웃에 살고있는 한 주민은 《여기에서 얼마전에 짐을 다 빼내갔기때문에 가지고 나올것이 없을것이다.》고 하면서 《지난 주 낯선 차들이 이 집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짐을 나르는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이 집으로 드나들던 차는 다 알고있었는데 그날에 온 차는 전혀 모르는 차였다고 하면서 미리 알고 준비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김기춘이 자기의 죄악을 덮어보려고 미리 관련자료들을 빼돌렸다는것이 어지없이 밝혀졌다.

지금 김기춘은 어떻게 하나 살구명을 열어보려고 자기의 죄악에 대해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발악하고있다.

이자는 부정추문사건관련자의 하나인 차은택이 최순실의 지시로 자기를 만났다고 주장한데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전 2차관이 김기춘을 통해 최순실을 알게 되였다고 폭로하였지만 이것마저도 부인하였다.

여러명의 같은 증언을 놓고도 아닌보살하는 김기춘의 이 비렬한 추태는 《국정》롱락사건의 진상을 덮어버리기 위한 박근혜역적패당의 망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역적패당의 과렴치하고 뻔뻔스러운 망동은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더 큰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정치적무능아의 《대통령》선거출마를 반대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지난해 12월 27일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의 《대통령》선거출마를 반대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최근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림장을 밝힌 유엔사무총장 반기문이 한 재벌로부터 수십만US$를 받아먹은 의혹이 커지고있는데 대해 밝혔다.

뇌물행위를 한 재벌에 대한 수사때 변호사가 반기문의 선거출마설이 나돌자 《반기문이 웃긴다. 돈받은 사실이 드러날텐데.》라는 말까지 하였다고 사설은 지적하였다.

사설은 반기문이 이에 대해 부정하지만 당시의 수사기록이 아직 검찰에 남아있는것만큼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그가 《대통령》선거후보로 나서는것이 마땅한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기문이 오래동안 자기의 철학이나 정책에 대해 보여주지 않았고 유엔사무총장으로서의 평가도 좋지 않다고 사설은 짜밝혔다.

사설은 반기문의 유엔사무총장임기 10년동안 특별히 내세울만 한 성과가 별로 없는데로부터 외신들이 《력대 최고로 아둔한 총장, 력대 최악의 총장》, 《너무 무능해서 위험한 한국인》 등으로 조소한것도 이미 많이 알려졌다고 비난하였다.

결국 반기문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얼마간의 지지를 얻은 리유는 유엔사무총장이라는 경력이 주는 배경의 효과라고 하면서 사설은 능력보다 배경에 기댄자가 《대통령》으로 되면 사회가 어떤 대가를 치르어야 하는가를 지금의 박근혜가 뚜렷이 보여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일을 또다시 되풀이할수 없다고 하면서 사설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유엔사무총장이 갖추어야 할 능력에 대해 이미 혹독한 평가를 받은 반기문은 정치적행보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왔다.

자기의 유엔사무총장선출을 적극 지원한 로무현 전 《대통령》의 묘를 참배하지 않았거나 《새마을운동》을 례찬하다가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이 터지자 박근혜와 거리를 두며 갑자기 달라지는 등의 처신에 대한 론난도 있다.

뇌물행위의혹까지 받고있는 반기문이 《대통령》후보로 나선다면 정치적불신과 혐오는 더 커질것이다.

자주, 평화, 친선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변함없는 대외정책리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신년사가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세계의 신문, 통신, 방송, 인터네트홈페지 등이 우리 원수님의 신년사를 원문그대로 또는 요지로 전하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사회주의의 보루, 반제자주의 성새,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로 세계의 중심에 우뚝 솟아있는 주체조선이 올해에도 새로운 기적과 변혁을 안아오고 인류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전진시켜나갈것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이 자주와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선도자적역할을 할것을 바라고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들과 선린우호,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려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리념에 충실할것이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들과 선린우호,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할것입니다.》

자주, 평화, 친선은 우리 당의 일관한 대외정책리념이며 세계자주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변함없이 견지하고있는 근본립장이다.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것은 인류공동의 공통된 지향이며 력사적과제이다.

인류가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력사발전의 법칙이다.

그 누구도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으며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나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나라나 침략과 략탈, 지배와 예속을 받으며 사는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바란다고 하여 또 시간이 흐른다고 하여 저절로 실현되는것이 아니다. 오직 적극적인 노력과 투쟁을 통하여 쟁취할수 있다.

다른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있는 오늘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매개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절박하게 나서고있다.

매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인류공동의 운명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인류사회가 발전할수록 나라들사이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진다. 이런 조건에서 인류가 바라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을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관계를 수립하고 모든 나라 인민들이 다같이 부흥번영하는 정의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이라고 할수 있다.

자주성에 기초할 때 나라들사이의 관계가 공정하고 정동하게 이루어질수 있으며 모든 나라 인민들이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자유로운 발전과 인류공동의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나라와 민족들은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배격하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대외활동에서 시종일관하게 자주적립장을 견지하면서 인류자주위업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자그마한 요소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자주의 원칙을 고수하였다.

조선혁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주체적인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관철하여왔다.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어려운 시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우리의 내정에 간섭하며 혼시질을 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대국주의자들의 압력을 단호히 배격하고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하였다. 그처럼 간고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외세의 그 어떤 압력에 굴함이 없이 자주적대를 더욱 굳게 세우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수호하였다.

만일 우리가 대외관계에서 자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제국주의자들과 대국주의자들의 압력에 굴복하였다면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울수 없었을것이며 대국들의 위성국이 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노예가 되여 지리멸렬되였을것이다.

자랑찬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우리 혁명의 력사는 자주의 원칙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당의 대외정책이 얼마나 정당한것인가를 뚜렷이 심증해주고있다.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성을 척도로 하여 평가하고 처리하였다.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타협적으로 견결히 투쟁하였다. 이것은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지지와 공감을 받았다.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우리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는것은 우리 당의 투쟁목표이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대외정책적립장이다.

예나 지금이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략탈적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더욱 교활하고 악랄해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평화의 원쑤이다. 도처에서 강권과 전횡, 내정간섭과 침략전쟁책동에 매어달리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누구보다도 평화를 사랑한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미국에 의해 참혹한 전쟁의 재난을 겪은 우리 인민은 장장 수십년동안 항시적인 전쟁위협속에서 살고있다. 우리처럼 평화의 귀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나라와 인민은 이 세상에 없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창조와 건설의 대진군을 벌리고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평화적환경이다. 정세가 안정되고 나라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수 있다.

우리가 대외활동에서 평화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은 바로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여야 우리 민족과 전세계를 전쟁의 참화에서 구원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기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 공화국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여왔다. 조선반도와 세계평화위업에 대한 중대한 책임감과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수많은 평화제안들을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진정을 기울이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최근년간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국에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았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공명정대한 발기도 내놓았다. 조선반도정세가 교전직전까지 치달아올랐을 때에도 최대의 인내성을 발휘하여 최극단의 정세를 평정하고 평화를 수호하였다.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평화가 귀중하다고 하여 구걸은 하지 않는다. 침략자, 도발자들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건드린다면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쓸어버림으로써 공고하고도 영원한 평화를 안아오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허물수 없는 철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인민들과의 선린우호,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공화국이 대외활동에서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리념이며 원칙이다.

서로 협력하면서 다같이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살려는것은 인간의 사회적본성이다. 그 어느 나라나 지역에서 살든 인민들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대결이 아니라 친선과 협조를 바라고있다.

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인류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진보적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 친선협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왔다. 불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반제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련대성을 강화하여왔다. 자주를 지향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이라면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단결하고 협조하여왔다.

우리의 립장은 오늘도 래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비록 지난날에는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과거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우리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우호적으로 나오는 나라들과는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해나가려는것이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리념은 참으로 정당하다.

세계정치구도와 력량관계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정세가 복잡다단한 속에서도 우리의 지위가 더욱 높아지고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이 강화된것은 우리의 대외정책의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고립압살책동이 강화되는 속에서 국제관계를 확대하여왔다.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이후 66개 나라와 새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많은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제문화적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키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뉴대와 련대성을 강화하였다.

이것은 자주적인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의 승리이다.

자주, 평화, 친선의 기치밑에 세계 평화애호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세계자주화위업을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리념은 불변하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리념에 충실할것이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모든 나라들과 선린우호,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고 진정한 국제적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리 학 남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로씨야, 중국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5돐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돐에 즈음하여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가 로씨야 연해변강 씨비르쩨보시와 중국의 길림시, 대련시, 심양시에서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전시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만민의 다함없는 흠모심에 떠받들려 활짝 피여난 태양의 꽃들인 김일성화, 김정일화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전시회개막식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 군중들과 우리 나라 대표부, 현지에서 사업하는 여러 단위의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로씨야 연해변강 씨비르쩨보시 1부시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5돐과 존경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돐을 맞는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처럼 성대한 전시회가 진행되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통일로씨야당산하 전로사회단체인 청년근위대 연해변강지부 위원장과 체르니곱스끼구역의회 의원은 이번 전시회가 로씨야인민들에게 조선에 대하여 잘 알게 하고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정을 더욱 두터이하는 계기로 될것이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중국 길림두삼경제무역공사 총경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조선인민군을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신 위어난 군사가이시다, 오늘 조선인민군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세계최강의 군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정의의 군대로 더욱 위용떨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동방전자과학기술유한공사 총경리는 태양의 꽃 김정일화는 위인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심의 정화이며 력사의 땅 길림은 중조친선의 증견자라고 말하였다.

대련시화초협회 회장과 비서장은 태양의 꽃을 중국뿐아니라 세계 각국에 널리 보급해나갈 결의를 피력하였다.

금망개료녕심양화공유한공사 리사는 강철의 의지와 백승의 지략,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조선혁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신것으로 하여 세계정치원로로 칭송받으신 김정일동지의 존함은 붉게 피여난 태양의 꽃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혁명가의 귀감으로 빛나는 위대한 한생

위대한 태양의 해발이 되시여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생을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고있다.

라오스녀성동맹대표단 단장 인라완 제우분판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을 방문하면서 위대한 녀성혁명가이신 김정숙동지의 생애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그이는 김일성주석께 무한히 충실한 혁명전사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의 나날 한몸이 그대로 방패가 되시여 주석의 신변을 보위하시였다.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중의 업적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받들어 올리신것이다.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공적을 따라 끝없이 승승장구하는 사회주의조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민주콩고로동계시민협회 전국위원장 앙드레 로베엘레 깔론다는 김정숙동지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조선녀성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였다, 그이께서는 녀성동맹을 튼튼히 꾸리고 여기에 광범한 녀성들을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녀성해방운동에 쌓으신 김정숙동지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제중항일혁명투사 서순옥의 아들 김진송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 대한 흠모심을 이렇게 표시하였다.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을 때마다 김정숙어머님의 동상을 우러르며 그이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군 한다.

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견결히 옹호관철하기 위한 길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으시였다.

수령을 받들어모시는 전사의 자세와 립장이 어때해야 하는가를 실천적모범으로 보여주신 어머님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에 감동을 금할수 없다.

하기에 진보적인류는 오늘도 김정숙어머님의 고결한 충정을 따라배우려 하고있는것이다.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 단장 오행덕은 김정숙어머님의 생애는 비록 짧았지만 한없이 고귀한 한생이였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삶의 순간순간을 애국, 애민의 헌신으로 수놓아오신 김정숙어머님의 생애야말로 동지들과 인민들을 위한 헌신의 한생, 조국의 자유와 해방, 부강번영을 위한 위대한 한생이다.

그이께서 보여주신 숭고한 전위전사의 모습은 오늘도 민족성원모두의 심장속에 수령절사 충성의 참뜻을 새겨주고있다.

페루김정숙동지혁명활동연구협회 위원장 메레싸 오띠니아노는 김정숙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김일성주석의 가장 충직한 혁명전우, 항일의 녀성영웅으로 명성떨치시였다, 김정일동지를 김일성주석의 후계자로 훌륭히 안아키우신것은 녀사께서 이룩하신 커다란 공적이다, 그이의 존함과 불멸의 업적은 조선의 강성번영과 더불어 길이 빛날것이다고 격찬하였다.

중요한것은 자기의 힘을 믿는것이라고 강조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2017년 새해를 맞으며 신년사를 하였다.

그는 모든 꿈과 훌륭한 리상이 실현되기를 바라며 모든 가정들에 기쁨과 사랑이 깃들고 거리와 도시, 마을들이 더욱 아름다와지며 더욱 훌륭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2016년은 순탄하지 않은 해였으나 로씨야앞에 가로놓인 난관들은 인민들을 단합시키고 앞으로 전진할수 있도록 거대한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중요한것은 자신과 자기의 힘, 자기 나라를 믿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서로 신뢰하고 나라를 진정으로, 진심으로 걱정해준데 대해 로씨야인민들에게 사의를 표시하고 모두가 함께 나누는 걱정과 기쁨 그리고 훌륭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가족들과 함께 새해를 맞는 훌륭한 오랜 전통이 전체 인민들을 단합시키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향집을 멀리 떠나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일터와 초소에서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해의 가장 훌륭한 축원을 보내였다.

자본주의사회의 어수선한 새해풍경

새해, 누구나 지나온 한해의 가지가지의 추억들을 더듬으며 보다 희망찬 래일에 대한 락관에 넘쳐 기쁨과 행복속에 맞이하는 새로운 해이다.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에 모든 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기쁨에 넘쳐 인사를 주고받는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를 안고 새해를 맞이하였다.

새해의 첫인사부터 《당신은 해고되지 않았습니까?》, 《새해에 해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말들이 오고갔다.

언제 실업자가 될지 알수 없는 가련한 처지, 실업자대렬이 거리와 골목을 누비는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정신적고통의 반영이다.

미국에서 지난해 12월 한주일동안에 새로 등록된 실업자수는 27만 5 000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 전주에 비해 2만 1 000명 더 많은것이라고 한다.

에스빠냐와 도이췰란드에서 지난해 11월에 실업자수가 각각 370여만명, 250여만명에 달한것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실업자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 그 수가 거의 2억명에 이르고있다.

실업이 곧 죽음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갈 길이 너무도 막막하여 스스로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총기류범죄가 성행하고있는 미국에서는 《어제 밤 무사했습니까?》, 《신변이 위험하지 않습니까?》라는 또 하나의 류행어가 나돌고있다. 지나온 생활에 이어 또다시 새해에도 악몽속에 살게 될 사람들의 비애에 찬 목소리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첫날 꼭두새벽부터 류혈적인 총기류범죄가 범람하여 경악을 자아냈다.

시카고시에서만도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120건의 총기류범죄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로 하여 19명이 목숨을 잃고 100여명이 부상당하였는데 이것은 그전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나 증대된것이라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백인경찰이 길가던 흑인에게 무턱대고 총탄을 란사한 사건, 학교들에서의 총격사건을 비롯하여 미국에서는 년초부터 년말까지 어느 하루도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지 않은적이 없다.

새해에 들어와서도 이런 피비린 참상이 계속 벌어지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어수선한 새해풍경은 집없는 사람들의 생활처지에서도 엿볼수 있다.

여러 나라들에 들이닥친 큰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 지난해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다. 그러나 피해지역 인민들은 생활리전이 원상대로 복구되지 못한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하였다.

지난해 8월 무더기비와 큰물로 혹심한 피해를 입은 미국 루이지아나주의 64개의 행정구역가운데 20곳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였다.

그때에 내린 무더기비와 큰물로 10여명이 사망하고 6만채의 살림집이 파괴되여 수많은 리재민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해지역은 아직도 한심한 상태에 있으며 많은 리재민들이 한지에서 새해를 맞았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의 빈궁자들은 더이상 목숨을 이어갈래야 이어갈수 없는 막다른 처지에 빠져 오물장이나 빈민구제소를 찾아다니거나 길바닥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고있다.

집없는 사람들이 지하철도나 다리 등지에 판자집을 세우거나 천막을 치고 새해를 맞는 비참한 모습, 전란을 피해 제 고향을 등지고 이국땅에 들어가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는 피난민들의 광경은 그야말로 눈물없이 볼수 없다.

이처럼 앞날에 대한 극도의 비관과 절망속에서 허덕이고있는 자본주의나라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달프고 막막한 새해를 맞이하였다.

이들이 앞으로 어떤 불행과 고통을 당하며 암흑세상에서 헤매게 되겠는지 누구도 알수 없다.

반인민적인 자본주의제도에서 아무리 해가 바뀌어도 근로인민대중이 기쁨과 희망으로 맞이할 새해는 영원히 오지 않을것이다.

정 원 준

이스라엘의 령토강점종식을 위해 노력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7일 이스라엘의 령토강점을 끝장내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내오기로 결정하였다.

전문위원회는 이스라엘의 정착활동중지를 요구하는 유엔안보리사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령토강점을 종식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을 조사할것을 요구하였으며 세계 모든 나라들이 유태복고주의정권의 령토강점을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에 합세할것을 호소하였다.

대규모반항공연습 진행

이란의 남부지역에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규모반항공연습이 벌어졌다.

이번 연습에는 륙군과 이슬람교혁명근위대의 반항공부대, 포부대, 해군지원부대 등 약 1만 7 000명의 병력이 참가하였다.

대륙간탄도미싸일 시험발사

인디아가 지난해 12월 26일 오디샤주 앞바다에 있는 한 섬에서 《아그니-5》대륙간탄도미싸일을 성과적으로 시험발사하였다.

사거리가 5 000km이상인 이 미싸일은 1 000kg까지의 핵탄두를 탑재할수 있으며 자체유도체계를 갖추고있어 탄도추적시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의 무분별한 정탐활동강화책동

일본이 정탐활동을 위한 무인정찰기도입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최근 일본방위성은 2019년 말까지 아오모리현에 있는 항공《자위대》의 미사와기지에 대형무인정찰기《글로벌 호크》를 배비하기로 결정하였다. 방위성은 앞으로 이 기지에 3대의 정찰기를 배치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라오스에서

라오스에서 최근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현재 정부는 2025년까지 나라의 총전력생산능력을 약 1 200만kW로 늘일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그 실현을 위해 메콩강과 지류에 소형수력발전소들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일제리에서

알제리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2017년도 국가예산을 채택하였다.

이 나라 대통령이 국가예산을 비준하였다.

국방부문에 국가예산의 많은 몫이 돌려지게 된다고 한다.

르완다에서

르완다가 지난해 12월 28일 수도 끼갈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시안의 약 54km의 도로구간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방글라데슈에서

방글라데슈정부가 최근 사회적으로 불건전한 생활기풍을 없애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고있다. 정부는 인터네트상으로 색정적인 내용물을 류포시키던 500여개 웨브싸이트들의 운영을 중지시켰다.

해외에서 운영되고있는 색정웨브싸이트들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차단하게 된다고 한다.

국제적규탄을 받는 극악한 평화파괴자

지난해말 알제리신문 《싸우드 알 아흐라르》에 실린 한편의 글이 아랍인들의 주목을 끌고있다.

글에서 필자가 얼마 안있어 백악관을 떠나게 되는 현 미국대통령 오바마를 두고 미국력사상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라고 결론하였던것이다.

21세기에 들어와 중동지역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부쉬와 대비해볼 때 이것이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는것을 알수 있다.

돌이켜보면 부쉬집권때는 미국이 주권국가들에 대한 로골적인 침략과 파괴를 일삼던 시기라고 할수 있다.

부쉬는 일부 나라들을 《악의 축》이라고 고약하게 헐뜯었지만 도리어 그자신이 악마이고 미국은 악의 제국이라는것을 세계면전에서 낱낱이 드러내놓았다.

부쉬는 《반테로전》의 간판을 내들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적침공을 감행하여 이 나라를 자기의 손아귀에 걸어쥐었다.

이어 이라크를 《대량살륙무기개발국》으로 몰아붙이다가 끝내는 다국적무력을 동원하여 만신창으로 만들어놓았다. 부쉬는 이렇게 군사적강권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원유자원이 풍부하고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라들을 미국의 수중에 장악하였으며 중동에서 혼란시대의 서막을 열어놓았다.

부쉬의 힘에 의한 중동지배전략은 미국에 막대한 경제, 군사적손실을 가져다주었다. 이라크침공에만도 1조US$를 탕진하였으며 《반테로》의 미명하에 여러 나라들에 미군을 들이밀고 수많은 병사들을 제물로 섬겨바쳤다.

이와는 반면에 오바마는 분렬과 혼란을 조장시키는데 모를 박고 중동지배전략을 추구하였다.

《아랍의 봄》을 통해 튜니지, 에질트, 예멘, 수리아 등 지역나라들에서 소요를 일으키고 친미적인 정권들을 수립하려고 획책하였다.

리비아를 나토무력을 내몰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중동지역에 조성된 정치적혼란과 무질서속에서 《이슬람교국가》와 같은 테로단체들이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였다. 오바마는 반미적인 나라들의 정권전복을 위해 반정부세력들과 테로분자들을 음으로양으로 지원하면서 지역정세를 류혈과 분쟁, 테로가 란무하는 과국적국면에로 몰아갔다. 한편 코파간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면서 지역나라들을 리간시키고 대결에로 유도함으로써 아랍세계가 단결할수 없게 하였다.

이로부터 초래된 결과는 완전한 계획와 무리죽음, 세계적인 피난민대란뿐이다.

이러한 혼란속에 오바마는 력대 미국대통령들가운데서 중동나라들에 가장 많은 무기를 팔아먹는 실적을 올렸다.

중동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를 리용하여 미국제무기의 우월성을 요란스럽게 광고하면서 사우디 아라비아에만도 480여억US$어치의 무기를 판매하였다.

조달된 살인무기들은 미국이 바라던대로 지역내 분쟁들에서 사용되여 더 큰 류혈참극을 빚어냈다. 각종 부대조건들을 내걸고 감행된 미국의 무기판매책동이 지역나라들을 미국에 더욱 예속시키고 의존하게 만들었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오바마는 부쉬보다 더한 평화파괴자이다.

부쉬가 미욱하고 조록하게 세계평화를 파괴한 불망나니였다면 오바마는 강권과 회유기만의 두 수단을 다 발동하여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 극악한 전범자이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기마련이다. 오늘날에 와서 중동지역 인민들은 자기들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운 현 미행정부의 광면술책에 분노와 증오감을 표시하고있다. 많은 아랍인들이 오바마를 자기들의 첫째가는 원쑤로 간주하는것은 당연하다.

비단 중동에서뿐이 아니다. 집권기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정부전복과 인권모략책동들을 일삼으면서 세계도처에서 전쟁과 류혈분쟁의 불을 지핀 오바마의 죄악은 또 얼마나 엄청난것인가.

세계의 정의와 량심을 특등범죄자 오바마를 국제적인 심판대우에 올려세울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본사기자 안 철 권

대풍피해

필리핀에서 최근에 들이닥친 태풍으로 농업부문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12월 28일 이 나라 농업성이 밝힌데 의하면 북부지역에서만도 26만 8 355t의 알곡이 못쓰게 되였다.

그 손실액은 총 40억p(필리핀페쏘)에 달하였다.

정부가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고있다.

폭 우

잠비아의 북부지역에서 최근 무더기비가 내려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12월 27일현재 4명이 목숨을 잃고 부상자가 났다.

또한 약 90동의 학교건물이 파손되였으며 일부 다리들이 떠내려갔다고 한다.

현지에서 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지 진

미국의 서부지역에서 지난해 12월 28일 리히터척도로 5.7의 지진이 2차례 발생하였다.

진앙은 네바다주의 호손으로부터 약 28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날 이곳에서 리히터척도 5.5의 지진이 또 일어났다.

【조선중앙통신】

ㄱ-710016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6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